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統一政策

金日成有故時北傀權力構造變化 方向豫測 및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分析

研究執筆責任 李 永 明

(略歴) 咸興 共產大學 卒業 (1959)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修了(1970)

共產圈問題研究所 理事(1972~74)

} 북傀 권력 구조 변화
 " 변화
 기성일 권력 승계
 북傀 이성애에
 남북한 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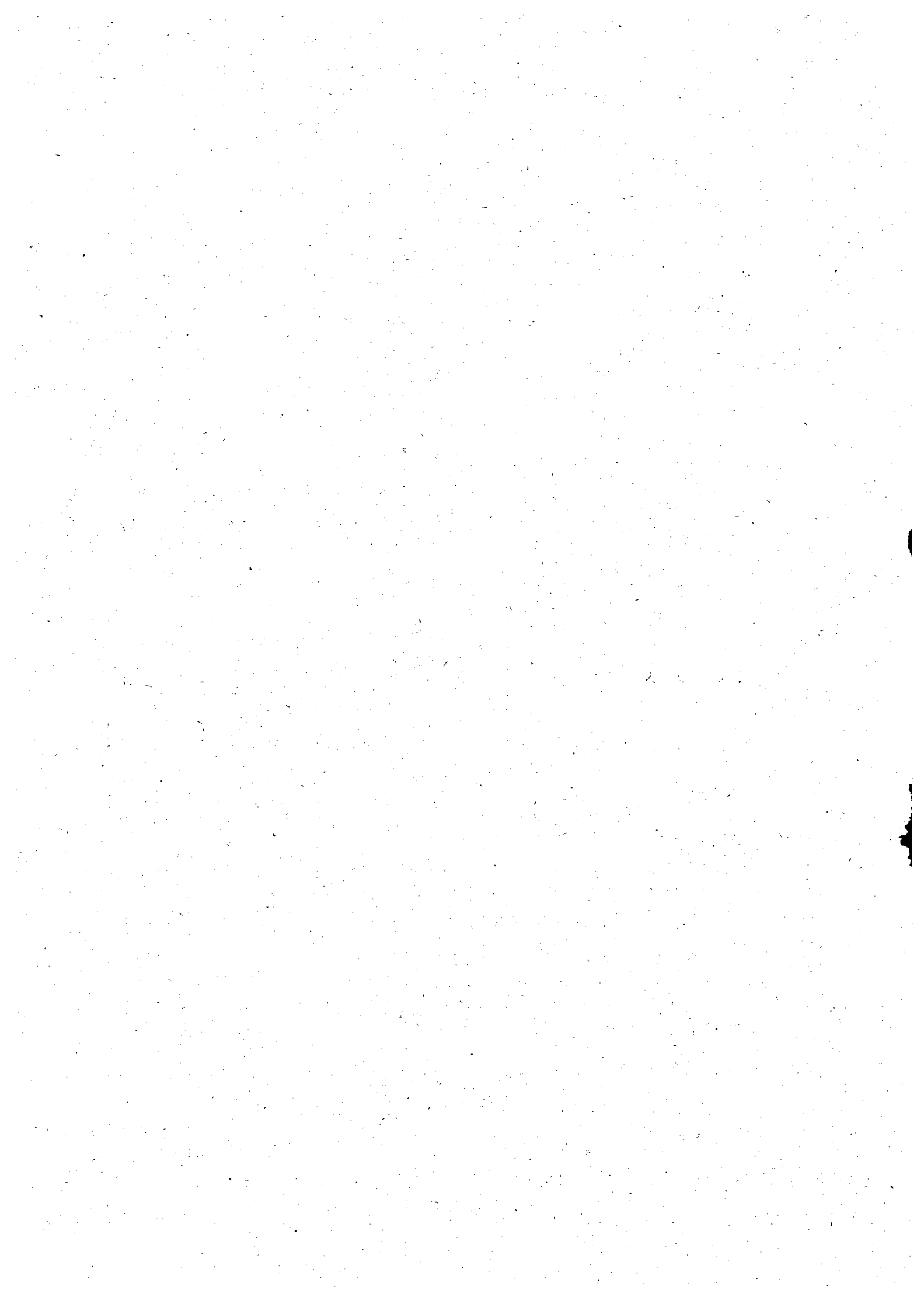
刊行責任 朴 鏞 德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序 論	9
2. 共產圈 權力承繼의 特徵	13
3. 金正一 權力承繼의 理論定立作業	24
4. 金正一 權力承繼問題의 背景과 準備過程	34
5. 金日成死亡後 北傀에 미칠 外部的 影響力	49
6. 金正一의 리더십과 權力構造의 向方	57
7. 南北韓 關係의 展望	71
8. 結 論	81
㉔ 要 約 文	89



1. 序 論

1956年 소련 共産党 20次大会에서 <후루시초프>는 그의 特別報告 가운데 <스타린>을 가리켜 『暴虐, 虐殺者, 吸血鬼, 犯罪者』等 極端的인 表現으로 非難하였다. (註1)

이 報告를 發表하기까지 많은 迂餘曲折을 겪은 것은 알려진 이야기이다.

53年 3月 <스타린>이 死亡하고 그해 4月부터 党的 第1書記로 事實上的 實權을 掌握한 후루시초프였지만, <스타린>을 格下시키는 데는 3年の 準備가 必要하였던 것이다.

후루시초프는 스탈린 時代에 이미 共産党 政治局의 序列 3位로서 겉으로는 스탈린에게 絶對服從하였으나 가슴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뼈에 사무친 怨恨을 품어 왔으면서도 죽은 스탈린에 대한 批判을 躊躇한 것이다.

最高會議議長 <불가닌>도 스탈린生存時期 그의 招待를 받으면, 『果然 自己가 監獄으로 보내질 것인지, 無事히 歸家할 수 있을 것인지 確信할 수 없었다』(註2)고 述懐한 것이 公開된 것도 이 會議였다.

소련의 實權者로 登場한 이들이 죽은 <스타린>을 公式적으로 批判하는데 3年の 準備가 必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스타린>을 狂信하는 党内勢力과 一般國民들의 머리속에 扶植된 스탈린崇拜觀念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이었는가 하는것을 짐작하게 한다.

中共에서는 毛沢東의 死亡後 아직도 毛沢東을 讚揚하고 있지만, 毛의 妻를 包含한 急進派들이 除去되고 政策面에서도 經濟優先과 合理主義를 追求하는 傾向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크레믈린의 붉은벽에 묻혔던 스탈린의 屍體를 파내서 共同墓地로 옮긴 것처럼 程度의 差異는 있겠지만 毛에 對한 格下運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確信할 수도 없을 것이다.

<스타린>없는 소련과, 毛沢東없는 中共이 徐徐히 變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否定하지 못한다.

특히 스탈린 死亡後 東歐에서 나타난 深刻한 變化를 想定한다면, 하나의 獨裁者가 退場한 자리에, 그 獨裁者와 꼭 같은 새로운 獨裁者가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은 想像할 수 없다.

政治體制를 人間經驗의 產物이라고 規定한다면, 共產圈의 獨裁者는 곧 經驗의 總體로서 政治體制를 形成, 規制하는 絶對者이다.

따라서 하나의 獨裁者가 退去하고 다른 執權者가 登場하면 그가

蓄積한 經驗의 總體가 先行者와 같을 수 없고 새로운 環境下에 政治體制가 變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權力構造面에서, 소련은 트로이카體制를 거쳐 <브레즈네프>의 權力이 漸次 肥大하여 스탈린 時代의 絶對權者로 되돌아 가는 還元型 變化의 印象을 풍가지만 그가 스탈린 型의 카리스마의 獨裁者로 復歸하지 못할 것은 當然하다.

中共에서는 華-登體制가 굳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앞날의 變化를 豫測하기는 어렵다.

北韓의 金日成도 老年과 身病, 그리고 中소의 變化를 보면서 後繼問題에 그 나름의 獨特한 方策을 講究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金日成主義의 運命과 金日成 退去後의 權力構造가 金日成의 生前 所望대로 實現되지는 못할 것이다.

北韓의 現在 政治體制를 規制하는 것은 金日成이지만 金日成死後의 北韓의 政治環境을 規制하는 것은 金日成아닌 새로운 要因이기 때문이다.

中共黨 계령락과 共産匪賊을 거쳐 소련 25軍의 特殊部隊 大尉로 活動한 金日成과 그의 周圍를 둘러싼 類似한 權力集團은 이미 大部分 退去하고 있다.

그들의 뒤를 이어 産業部門에서 새로 자라난 技能엘리트가 있고

經營部門의 專門職 官僚들이 있다.

이들은 金日成統治集團이 걸어왔던 길과는 相當히 距離가 큰 다른 經驗을 蓄積하였다. 이들의 時代가 열리면, 北韓의 政治体制, 따라서 權力構造와 政策面에서, 變化가 일어날 것은 當然하다.

아들에게 權力을 물려 주려는 金日成의 所望이 金日成없는 北韓에서 그대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거의 可望이 없는 일이다.

특히 金日成体制의 最大의 名分이라고 해야 할, 對南政策面에서도 變化는 不可避할 것이다.

2. 共産 權力承繼의 特徵

○ 共産國家의 政治體制는 絶對權을 掌握한 独裁者의 思想과 經驗의 總體가 集約된 것으로서, 共産國家의 政治體制는 그나라 独裁者의 人格을 反映한다.

○ 独裁者의 長期執權으로, 權威가 確立된 곳에서 政治의 人格化는 避할 수 없는 普遍的 現象이다. 따라서 政治의 人格化가 政治基盤으로 굳어진 共産國家의 權力 承繼는 한사람의 執權者가 다른 執權者로 交替되는 것이 아니라, 独裁者의 思想과 政策과 統治體制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延長하는 絶對權者의 人格의 延長으로 看做한다.

○ 老齡에 접어든 共産独裁者는 다음의 새로운 執權者가 自己 權威에 挑戰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認識한다.

이 可能性을 豫防하기 위해서 後繼者를 選定할 때, 우선 自己의 思想과 政策과 統治體制를 그대로 保存할 수 있는 者를 物色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後繼者를 選定하였다 하더라도 後繼者로 하여금 自己의 모든 것을 어김없이 繼承할 수 있도록 相當한 時間을 두고 準備를 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独裁者의 人格의 延長을 위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共

産國家의 權力 繼承者는 例外없이 先行者의 思想과 政策을 大幅 變更시키고 있다.

레닌의 權力을 繼承한 <스타린>은 레닌의 思想을 레닌主義로 定式化하고 이것을 發展시킨다는 名分下에 實際로는 自己의 支配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레닌의 思想理論과 體制를 大幅 變質시켰다.

思想分野에서는 弁証法의 3大原則을 4大原則으로 뜯어 고쳤고 黨의 獨裁에 關한 레닌의 主張을 拒否하였다.

1923年 레닌이 黨 12次大會앞으로 書翰을 보내서 스탈린의 書記長 職 解任을 勸告하고 그 理由로서 스탈린의 官僚主義와 殘忍性 暴虐性을 指摘하였을 때, <스타린>은 欠陷의 是正을 盟誓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레닌 死亡後 스탈린의 橫暴는 더욱 더 極에 達하였다. 中共의 華國鋒은 毛沢東記念館을 建立하면서도 <紅>에서 <專>으로 기울어지는 經濟的 合理主義를 追求하고 있다.

○ 두번째 特徵은 共產圈의 權力의 承繼가 항상 危機를 同伴한다는 것이다. 權力에 對한 接近이 禁忌로 되어있고, 執權者의 交替역시 民主國家의 選舉라든가 公開的인 政治過程으로 制度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獨裁者 權力의 承繼는 體制全般에 深刻한 衝擊을 준다. 後繼者는 通常 絶對權者가 指名하지만 일단 指名한 다음에는 現

存首領과 指名받은 後繼者 사이가 쉽게 破綻을 일으키는 것이다.

<브레즈네프>는 <후루시초프>를 背反하였고, 東獨의 <호네커>는 <울부리히트>를 背反하는가 하면, 유고의 <랑코비츠>와 中共의 劉少奇, 林彪등은 後繼者로 指名을 받은 以後에 肅清되었다.

이들은 表面上 首領에 對한 背反으로 알려져 있으나 實際로는 後繼者 指名으로 말미암아 現存 獨裁者의 絶對的 權威가 損傷되었는데 根本原因이 있는 것 같다.

○ 首領이라는 巨木의 周圍에 서있던 小木에 不過한 參謀가운데서

어느 한사람이 後繼者로 指名을 받으면 그는 다른 幹部들과의 關係가 急速하게 惡化되고 上層部類속에서 派閥形成等 政治的 不安을 醸成하는 要因을 낳기도 한다.

9 이러한 傾向은 權力繼承의 經驗이 전혀없이 長期 執權한 獨裁權力의 後繼問題에서 더욱 深刻하게 나타난다.

中共의 毛沢東은 劉少奇, 林彪等 두사람의 後繼指名에서 繼續 失敗하고 後繼問題를 解決하지 못한채 死亡하였다.

유고는 66年度의 <랑코비츠>肅清後 後繼者 指名을 斷念하고 <티토>死亡後의 集團指導를 準備하는 實情이다.

더욱 獨裁權力이 강한 큐바와 北傀의 境遇는 아예 社會君主制라고 불러야 할 族閥承繼를 企圖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카스트로>를 指名하고 金日成이가
長男 金正一을 後繼者로 指名한 것이다.

○ 權力承繼에 따른 危機는 이데올로기와 政策을 둘러싼 論爭에서 가
장 激烈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共產政權 自体의 死活을 左右할 程
度로 重大한 것이다.

共產圈의 首領은 「오직 맑스레닌主義 理論으로 武装하고 豊富한
革命鬪爭 經驗을 所有하며 멀리 앞을 내다 볼 줄 안다. 또한
歴史的 必然性を 認識하고 그에 基礎하여 成熟된 社会, 歴史的 要
求를 解決하는데로 人民大衆을 옳게 組織 動員한다.」(註3)

이것이 首領의 資質이며 役割이라고 規定하는 것이 그들의 固定
된 論理이다. 그들의 理論을 그대로 받아 드린다 하더라도 共產
圈의 最上層 幹部들은 모두가 제 나름대로 맑스·레닌主義에 精通한
다고 自負하는 터이고 革命經驗에 있어서도 優劣을 가리기는 어렵
다. 더구나 歴史를 展望하고 大衆을 組織, 動員하는 政策上 問題
에 있어서는 無限定的 論爭을 일으키기에 充分하다.

共產圈의 1人 独裁者는 權力核心의 唯一 頂点으로서 神秘性으로
粉飾된 權威主義를 權力安定의 基盤으로 삼는다.

따라서 独裁者-首領 1人의 意思가 곧 이데올로기이며 이의 實現
万途가 곧 政策으로 되고 있다.

政權存立의 根拠라고 해야 할 独裁者의 退場은 後繼者가 되려는 피투성이의 싸움을 몰아오고 形式上으로는 이데올로기와 政策上의 激烈한 論争을 이르기게 마련이다.

또한 共產圈의 後繼權力을 둘러싼 權力鬭争과 이데올로기 및 政策論争은 有機的으로 聯関性을 갖는다.

스타린死亡後 <말렌코프>의 消費材生産 優先政策에 對한 <후루시초프>의 農業優先 政策의 對決은 農業發展에 関心이 큰 地方黨 幹部들의 支持를 끌어 모아 中央政府의 支持를 받던 말렌코프를 누르는 權力鬭争과 聯関되고 있었다.

軍事分野에서 <말렌코프>가 主張한 <核戰爭 共同滅亡論>에 따라 國防豫算이 大幅 削減되고 이에 對한 軍部の 非難이 激化되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때 <후루시초프>가 提唱한 戰爭可避論은 戰爭抑止力으로서의 核戰力優位를 確保해야 한다는 主張으로 軍部の 支持를 独占하므로써, <말렌코프>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加한 것이었다.

더욱 決定的인 것은 소련 共產黨 20次大會에서 始動된 스탈린 格下 運動이 東歐羅巴 共產陣營의 統治体制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았다는 事實이다.

소련에서 領導者-首領의 變化가 政策變化를 가져왔듯이, 東歐에서

는 스탈린格下運動으로 開始된 急激한 政策變化가 새로운 領導者를 要求한 것이다. 그리하여 폴란드에서는 스탈린主義者들의 10年統治를 顛覆하고 <고물카>의 權力이 誕生하는가 하면 헝가리에서는 56年에 暴動이 勃發하였고, 이것은 다시 68年의 체코의 政變으로 이어졌다.

共産圈의 權力承繼가 危機를 同伴하는 것은 必然的인 特徵이다. 共産圈 權力承繼의 세번째 特徵은 先行 独裁者가 退場한後 後繼權力의 体制은 相当期間 動搖를 거듭하며, 結局 上層의 權力鬭爭과 外部的인 環境要因의 複合된 作用으로 定着되는 것이다.

党的 首領은 「社会發展과 大衆運動의 成熟된 要求에 相應하여 出現하게 되는 傑出한 個人」(註4)이라는 것이 共産主義者들의 定說이다.

그리고 独裁者의 死亡으로 인한 境遇 先行独裁者의 權力繼承이 그의 思想 政策, 權力体制까지 그대로 繼承해야 한다는 것을 勘案해야 한다. 따라서 先行独裁者에 比해서 遜色이 없는 權威를 갖추고 上層 幹部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傑出한 歷史的 人物이 出現할 때까지 權力鬭爭이 繼續될 것은 當然하다.

先行独裁者가 党을 通하여 後繼를 指名하고 死亡하였다면 權力鬭爭이 比較的 最少로 收拾될 수 있다.

① 그러나 이境遇에도 後繼者를 指名한 瞬間부터 後繼者를 警戒하는 與他 勢力의 結束을 刺戟하므로써 派閥形成의 危險은 일찍부터 싹튼다.

首領-獨裁者가 死亡한다음에 展開되는 權力鬭爭에서 實際로 成功하는 事例를 보면 指名된 11名의 後繼者 가운데 겨우 5名에 不過하였다.

4名은 失敗하였고 2名은 한때 執權하다가 領導權을 奪取당한 소련의 <후루시초프>와 東獨의 <울부리히트>가 있다.

이것은 承繼를 둘러싼 權力鬭爭의 熾烈相을 말해준다.

② 이렇게하여 內部的인 權力鬭爭에서 勝者가 되는 것만으로 最終的인 承繼에 成功하는 것은 아니다.

全体主義 獨裁政權의 消滅은 恒常 外部로부터의 힘에 依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歷史的 事實을 考慮하면 外部로 부터의 힘의 作用은 內部的인 權力鬭爭의 結果까지도 뒤집어 놓을만큼 重要的 動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共產獨裁者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類型으로 劃一化하고, 그 類型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런 社會는 國際的인 環境이 變하여 周邊의 潮流가 自己들의 理念과 다를때, 이에 對한 深刻한 矛盾을 避하거나 適應하지 못한다.

強要된 外部條件이 內部政策을 急變시키면 既存体制의 崩壞를 가져오게 된다. 實例로 불가리아의 <체르벤코프>, 체코의 <노보트니>와 <두부체크>, 東獨의 <울부리히트>, 헝가리의 <라코시>, <게레>, <나지>, 폴란드의 <오하브> 등은 모두가 소련의 스탈린 格下運動을 模倣하도록 強要하는 外部的 힘의 作用으로 崩壞된 것이다.

<두부체크>는 國民들의 充分한 支持를 얻었고, <노보트니>를 逐出하는 權力鬭爭에서 勝者였지만 소련軍의 侵攻에 依해서 權力을 喪失하였으며, 체코의 權力承繼는 結局, <후사크>로 定着된 것이다.

共產圈 權力承繼의 네번째 特徵은 第1代 獨裁者가 死亡하고 權力承繼가 이루어지면 이를 契機로 体制 全般에 걸친 急速한 變化가 일어나는 것이다.

② 革命1代 獨裁者의 老衰, 死亡은 同時代に 革命經驗을 蓄積한 革命時代 幹部들의 全般的 老衰를 意味하며, 새로 자라난 技術엘리트와 管理部門 官僚들의 大量的인 浮上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들의 合理主意的 要求가 抬頭되는 것은 當然하며, 이런 時期에 体制的 要求와 不斷革命의 結合은 重大한 難題로 나선다.

이데올로기를 重視하는 不斷革命의 要求를 優先하면 先行獨裁者의 思想承繼와 思想面的 共產化는 促進되나 經濟 및 軍事面的 近代化

는 뒤떨어진다.

反對로 合理主義的 要求를 優先하면, 近代化는 促進되지만 이데올로기의 側面에서는 危險性을 招來한다.

이 問題를 解決하려는 政略的 傾向은 中共에서 나타나고 있다.

毛沢東은 生前에 周恩来-鄧小平으로 代表되는 實務派와 江清 主導下의 文革派를 並立시키고 相互 牽制시키면서 그들을 全部 自己에게 忠誠하도록 誘導하는 政治手腕을 發揮하였다. 이것은 毛의 이른바 <中道左派> 戰略의 根本方向이었다.

이 戰略方向에 따라 死亡前 後繼體制를 選定하는데 있어서도 實務派, 文革派等과 같이 色彩가 뚜렷한 어느 하나를 任命하지 않았고 文革-實務派로 알려진 華國鋒을 登用한 것으로 보인다.

江青派가 健在한다면, 毛의 調整이 없는 <中道左派> 戰略은 實現되지 못하고 中共의 政局은 거센 突風속에서 長期間 陣痛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實務派로 알려진 鄧小平이 復歸하므로써 中途左派 戰略은 堅持되고 이데올로기 強化와 近代化 促進을 併行하는 政策이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現體制는 毛없는 中共의 權力承繼 過程에서 보여주는 한 時期를 意味할 뿐이며, <中道左派> 戰略이 언제까지 持續된다고 速斷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共産圈 各國의 權力承繼에서는 終局的으로 1人獨裁 或은 同一한 理念을 가진 寡頭支配體制를 指向하는 性向이 더욱 濃厚하다.

權力承繼問題에 逢着한 共産獨裁들은 이 問題를 매우 深刻하게 熟考하게 되고 여러 가지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一般的 現象이다.

② 그 하나는 暫定的으로 政權機構의 地位를 強化하여 黨의 獨裁와 橫暴를 弱화시키는 것같은 印象을 造成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새 政權에 對한 國民의 支持를 誘導하며 黨의 權力承繼에 對한 關心을 低下시키도록 策動한다.

黨의 權力承繼가 이루어지고 어느程度 安定되면 政權機構는 다시 形式的인 것으로 還元되고 새 承繼者는 先行 獨裁者가 누리던 權力을 남김없이 回收한다.

이러한 事例는 57年度 폴란드의 <고물카>, 68年度 체코의 <두부체크>, 71年度 폴란드의 <기예레크>가 取한 措置들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權力承繼가 成功하면 새 獨裁者는 우선 環境與件에 맞게 黨機構를 變動시키고 黨의 上層幹部를 迅速하게 交替하며, 다음으로 中間層 幹部의 抵抗要素를 消滅시킨다.

이에 따라 党内 序列變動은 相當期間 繼續된다.

黨組織의 基礎인 黨員數에 있어서도 큰 變化가 發生한다. 그것은 反對派 肅清과 自派勢力 補強을 위한 것으로서 심지어 30-40%까지 增減하는 事例가 있다.

69年 <후사크>는 <두부체크>支持者 肅清을 強行하여 체코共産 黨員數는 28%까지 減少되었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는 自派勢力 補強을 위한 措置로 黨員數를 34% 激增시켰다.

革命 1代의 退場으로 權力承繼는 迂餘曲折을 거치지만 全般的으로는 技能엘리트의 浮刻과 이들의 權力 參與로 매우 느린 速度지만 1代 革命家 時代보다는 穩健傾向에로의 變化가 必然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金正一 權力繼承의 理論定立作業

지금까지 共產圈의 權力承繼는 例外없이 先行者의 思想과 政策이 拒否되고 深刻한 政治危機를 同伴하며, 權力承繼가 定着될 때까지 相当期間을 所要하는 가운데 強大國의 干涉과 体制의 急激한 變化까지 가져왔다.

老齡에 접어든 金日成은 權力承繼를 準備하는데 있어서 共產圈 各國에서 있었던 權力承繼의 經驗을 深刻하게 研究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 權力을 移讓하더라도 共產圈 各國의 承繼經驗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実感한 金日成은 드디어 自己아들에게 權力을 世襲시키려는 奇想天外한 癡想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를 自勉하는者가 아들에게 權力을 世襲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名分下에서도 反撥을 免할 수 없기 때문에, 北傀의 承繼理論 定立은 처음부터 迂餘曲折을 겪어왔다.

北傀가 金正一을 後繼者로 決定한 것은 73年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公式的으로 外部에 表面化한 것은 75年 4月 朝總聯 幹部學習用으로 下達한 이른바 4月提綱이 最初의 것이었다. 4月提綱에서 처음으로 金正一의 後繼者 擁立을 公言하면서 『親愛하는 指導者 金正一同志를 崇拜하는 것이

朝總聯일꾼들의 基本的 使命』(註5)이라고 強調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에도 權力世襲을 合理化할 理論的 體系는 아직 造作되지 못하였다.

1年後 76年4月 두번째로 朝總聯에 보낸 『勞動黨 30周年에 際한 幹部學習提綱』에서는 『首領님의 唯一한 後繼者인 親愛하는 指導者 金正一同志가, 黨의 革命과 建設의 全般事業을 指導하게 되므로써 革命的인 轉換이 일어났다』고 金正一을 讚揚하는데 始終하였다.

金正一을 後繼者로 해야 한다는 理論的 妥當性은 아직도 그럴듯한 根拠를 提示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提示한 것은 『金正一同志를 黨과 人民의 指導者로 높이 모심으로써, 首領님이 開拓하신 革命偉業을 빛나게 完成할 수 있게 되었다』 『金正一同志는 首領님의 革命思想, 領導藝術, 그리고 高邁한 共產主義的 德性을 完璧하게 體現하고 계시다』

『金正一同志는 首領님의 思想을 더욱 發展, 豐富化시킨 思想의 天才이며 人民의 스승이시다』

여기서 처음으로 『人民의 스승』이라는 讚辭가 追加된 것이다.

며칠後 朝總聯에는 『學習組員의 任務에 對하여』(註6)라는 또 하나의 文書가 下達되었다.

여기서는 『學習組員들은 親愛하는 指導者 金正一同志의 말씀을 깊이 研究 學習하고 金正一同志의 方針을 無條件 接受하며, 이를 徹底히 貫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結局 75年의 4月提綱을 비롯하여 76年에 下達한 二個의 文書에서는 金正一을 極口 讚揚한 것과, 金正一을 無條件 崇拜하며, 金正一의 命令을 無條件 執行하라는 行政式 強制에 그쳤을 뿐이다.

더구나 2件의 文書를 朝總聯에 보낸 直後, 北傀는 突然 金正一 偶像化宣傳을 全面 中止시켰고 이때부터 76年 10月까지 約 6個月間 金正一 後繼問題에서는 別다른 進展이 없었다.

이 期間의 變化에 對하여 여러 가지 憶測이 區區한 가운데 76年 10月 北傀內 幹部와 朝總聯 幹部들에게 『尊敬하는 指導者 金正一同志의 唯一指導體制를 세워 主体偉業을 代를 이어 빛나게 遂行해 나가자』라는 긴 題目的 幹部學習提綱이 指達되었다.

이 文書는 金正一 後繼體制 確立을 合理化하기 위한 理論文書로서 이 文書에서 처음으로 權力世襲을 強弁하는 論理의 全貌가 나타난 것이다.

北傀가 提示한 權力繼承理論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北傀가 共產圈 各國의 承繼經驗을 研究하고 이것을 根柢로 하여 게나름의 理論을 造作했다는 事實이다.

權力에 對한 接近이 禁忌로 되어 있는 北韓에서 最上部 權力層은 滿洲 共匪時代와 소련 25軍 隸下의 계리라部隊 生活을 함께 한 所謂 革命傳統派가 独占하고 있었다.

이들은 大部分, 金日成과 함께 늙은 者들로서 이미 적지않은 者들이 死亡했거나 步行조차 어려워 地팡이에 依持하고 있는 實情이다.

解放後에 起用한 技術幹部와 經營部門의 官僚 가운데 數名은 權力 上層에 參與하고 있으나 이들은 政治幹部속에 寄生하고 있을뿐, 政治權力을 行使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後繼權力體制에서 이들 技能엘리트들이 政治的 發言權을 行使하도록 許容한다는 것은 北傀의 앞날에 自由化와 修正主義를 불고 올 것이 分明하다.

權力繼承에서 革命傳統派 가운데는 適格者가 없고 既成世代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金日成의 心情이다. 따라서 길은 하나가 남아 있다.

即 單純한 權力繼承이 아니라 執權層 全體의 世代交替를 斷行해야 하는 것이다.

이 論理는 新世代인 金正一의 世襲을 合理化하는 根本目的과도 一致한다. 이에 對한 北傀의 論理를 보자.

『代에서 代로 繼承되는 革命은, 後繼者問題를 提起하고, 後繼者는

首領의 偉業을 넘겨받아 이를 完成하는 歴史的 使命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後繼者는 首領님과 함께 年老해 가는 既成世代가 아니라, 새로운 世代에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繼承原理를 옳게 解決하지 못하면 革命은 困難해 지고 이미 成就한 革命의 爭取物도 危險에 岌하게 된다』(註7)

一般的으로 革命을 代에서 代로 繼承한다는 것은 共產主義 建設이 한 世代에서 完成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世代에 걸친 長期間의 時日이 所要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北傀가 權力繼承理論에서 「代를 이어 繼承」한다는 것은 革命의 首領이 自己 한 世代동안 獨裁權力을 行使한 다음에는 權力을 새 世代에게 繼承시킨다는 것이다.

北傀의 論理를 따르다면 首領의 死亡과 함께 既成世代 全体가 無用之物처럼 政治舞台에게 退場해야 한다.

한 國家의 政治力이 特定된 어느 한 世代만으로 構成되어야 하며, 各異한 年令의 여러 世代가 同一한 目標를 向하여 함께 前進하는 政治的 調和는 全혀 不可能한 것으로 된다.

北傀의 서투른 世代交替論속에는 세 가지 側面的 政略的 打算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우선 제각기 人生觀, 世界觀을 가진 既成世代에게 權力을

물려주면 金日成의 思想과 政策을 拒否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幼年時節부터 金日成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成長하였고 金日成의 思想만 배웠으며, 金日成의 政策을 執行하는 것이 하나의 生活習性으로 굳어진 新世代에게 權力을 繼承시켜야 金日成의 人格의 繼承을 期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解放後 30餘年間 피비린내 나는 肅清속에서 살아남은 革命傳統派 上層幹部들이 表面으로는 服從하지만 金日成死亡後에는 그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金日成萬歲를 부르지만, 소련의 후루시초프가 그러했던 것처럼 뿌깊은 反抗을 품고있지 않는다고 断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結局 北傀의 世代交替論은 既成世代를 믿을 수 없는 金日成의 權力世襲 合理化를 위한 詭弁에 不過하다.

權力繼承 理論의 두번째 根拠는 首領에 對한 絶對的 忠誠을 強調하고 있다.

『後繼者는 首領을 絶對 信奉하고 首領에게 끝까지 忠實한 共產主義者여야 한다. 首領에게 忠實하지 못한 後繼者는 後繼者가 아니다. 일부나라 後繼者는 首領을 攻擊하고, 首領 生存時에 領導權 奪取를 陰謀하는 實例까지 있었다』(註8)

이 條件역시 共產圈 各國의 權力承繼經驗을 綜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世上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共産圈에서 權力을 承繼한 經驗을 全部 檢討하더라도 先行者의 思想과 政策을 끝까지 信奉한 後繼者는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北傀는 金日成의 思想과 政策을 些少한 修正도 없이 끝까지 信奉할 수 있는 者만이 後繼者라고 断定하는 것이다.

이것은 金日成中心으로 人格화된 金日成 政治体制를 고스란히 繼承해야 한다는 承繼原則을 再強調한 것으로만 볼수는 없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後繼者 한平生에 걸쳐 些少한 修正도 하지 않는다는 保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独裁者 1人에게 依存하는 1人独裁体制의 安定基盤은 權力層을 包摂한 모든 被統治者들이 独裁者의 絶對的 權威를 皮膚로 느껴야 한다.

따라서 1人独裁体制下에서는 独裁者에 對한 偶像化가 必須條件이다. 그리고 偶像化는 歷史上 前無後無한 神的 存在로 높여질 수록 政治的 安定度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先行者의 思想과 政策을 修正하거나 格下시키는 것이 不可避하게 된다.

金日成 死亡後, 北韓이 處하는 与件과 情勢가 어떻게 變하건, 金日

成主義를 끝까지擁護하며, 또한 金日成 政治体制의 變化가 後繼者 自身에게 重大한 影響을 미칠 그러한 사람이 後繼者로 돼야만 金日成이 바라는 死後까지의 保證이 가장 確實한 것이다.

이런 條件을 滿足시킬 수 있는 것은 金正一뿐이다. 그것은 金日成死亡後, 金日成格下運動이 일어난다면 그 소용들이 속에서 첫 번째로 犧牲되어야 할 者는 바로 金正一이기 때문이다.

특히 『一部나라 後繼者가 首領을 攻擊하거나 首領의 生存時에 領導權 奪取를 企圖』하였다는 것은 스탈린을 格下시킨 후루시초프, 후루시초프를 逐出한 브레즈네프, 中共의 林彪, 其他 東歐 여러나라의 事例를 가르키는 것이 分明하다.

이와같은 首領에 對한 背反을 하지 않는다는 保證도 역시 金正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두번째 條件역시 金正一의 權力世襲을 合理化하기 위한 狡猾한 詭弁이다.

權力繼承 理論의 세번째 根拠는 後繼者가 相當한 準備期間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後繼者는 首領의 몸가까이에서 革命과 社會主義 建設을 통한 首領의 體驗을 그대로 배우고 繼承하므로써 後繼者의 特徵을 完成시켜 나가야 한다』

『새 世代인 後繼者는 首領에게서 繼承한 모든것을 革命實踐에 具現하므로써 人民의 信賴와 尊敬을 받게 되며, 人民도 後繼者를 卓越한 領導者로 모시게 된다』

『準備期間없이 後繼者를 選出한 党은 混亂을 惹起시키고, 後繼者의 無能으로 領導權을 喪失한 事例도 許多하다』(註9)

세번째 論題를 살펴보자, ①後繼者는 首領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하여 首領의 身邊 가까이에서 生活해야 한다. ②새 世代出身의 青年이 長期間 首領에게서 思想과 政治手法을 배워 後繼者의 資質을 具備해야 한다. ③이런 準備期間이 없이 後繼者가 되면 混亂을 惹起시킬 뿐아니라 자칫 領導權을 奪取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몸 가까이에서 生活해 왔고 앞으로도 金日成과 寢食을 함께 해야한다는 條件을 누구보다도 滿足시킬 適格者는 金正一이다. 더구나 金日成의 몸 가까이에서 日常적으로 生活하는 새 世代 出身의 青年이라는 條件은 理論的 合理化가 아니라 金正一外에는 누구도 後繼者가 될수 없다는 鐵直한 獨裁者의 号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側面에서 새 世代의 青年은 『旧世代가 經驗하지 않을 수 없었던 生活과 鬪爭의 巨大한 學校를 거치지 않았다.

青年은 革命前의 恐怖와 不幸이 무엇인지 모른다』(註10)고 보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一般的 傾向이다.

自己의 確固한 人生觀, 世界觀이 아직 定立되지 못한 新世代가 金日成의 思想과 經驗만을 習得하고 權力을 繼承하면 『青年들은 우리 老人들의 뒷발을 最後 勝利의 瞬間까지 높이 받들고 나가야 한다』(註 11)는 스탈린의 이야기 처럼 金日成體制를 變更시키거나 죽은 金日成을 背反하지 않을 것이라고 打算하는 것이다.

後繼者가 自己의 無能으로 逐出된 事例은 소련의 <말렌코프>를 비롯하여 그 例가 적지 않다.

解放前 滿洲共匪時代를 뚫고 나왔고 解放後 30 餘年間 繼續된 肅清의 피바람속에서도 살아남은 現存 上層幹部들과 金正一을 比較할 때, 金日成의 不安은 오히려 當然하다 할 것이다.

金日成은 長期間의 訓練으로 그가 30 餘年間 휘둘러온 1人獨裁의 秘法을 하나 하나 傳授하며 金日成없는 金正一이 權力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對備하자는 것이다.

共産圈에서 어느 獨裁者도 미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北傀의 權力世襲의 理論的 合理化作業은 아직도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이를 補完하는 새로운 宣傳이 繼續될 것이다.

4. 金正一 權力繼承 問題의 背景과 準備過程

1960年 여름에 들어섰을때 金日成의 健康惡化問題가 처음으로 伝해졌다. 당시 50세로 그의 健康을 疑心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지나친 肥大症으로 血圧이 높아졌고 結石症이 惡化되었다는 것이었다.

그해 가을에는 大手術을 받아 結石을 除去하였고 그의 邸宅 1層에 있던 寢室을 2層으로 옮겨서 運動量을 增加시키는 한편 醫師들의 勸告와 黨政治委員會 決定에 依해서 禁煙과 禁酒를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때를 같이해서 北傀軍에서도 담배供給을 中止하고 禁酒 禁煙運動이 벌어지는가 하면 北傀幹部들도 一齊히 禁酒 禁煙을 黨規律로 強制하였다.

金日成 한사람에게만 禁酒 禁煙을 要求할 수 없어서 全住民에게 禁酒 禁煙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手術後 金日成의 健康이 回復되고 61年9月, 4次黨大會에서는 4時間半에 걸치는 報告演說도 途中에 두번 休息을 하고 無難히 마칠 수 있었다.

禁酒, 禁煙은 4-5年 繼續하다가 解除되었고 金日成의 健康問題에서는 또 다른 消息이 없었다.

그後 71年 10月 北韓을 訪問한 日本 NHK記者가 金日成을 만
난 자리에서 金日成의 옆모습을 찍은 写真이 公開되자 金日成의
목뒤에 큰 혹이 돌아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確認하였다.

金日成 목뒤에 생겨난 혹의 病名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72年부
터 共產圈 各國의 이름난 腫瘍學系統의 醫師들이 頻繁하게 北韓을
드나들었고 그 중에는 癌治療에 權威가 있다는 루마니아의 夫婦醫
師가 끼어 있었다.

혹을 治療하기 위한 努力의 痕跡은 여러 길을 通해서 알려졌다.
72年, 74年, 75年, 세번에 걸쳐 物理治療를 하였고 76年初까지
手術도 세번 받았다. 특히 74年末 루마니아를 秘密裡에 訪問하
고 手術을 받았으나 亦是 큰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金日成의 혹이 惡性 腫瘍으로서 向後 二年以上은
公職에 從事할 수 없다고 診斷을 받았다는 說이 나돌았다.

75년에 들어서자 金日成은 奔走하게 活動을 始作하였다. 3월에
는 中共을 訪問하고 5월에는 알제리아, 루마니아, 유고, 모리타니아
등 4個國을 巡訪하였다.

그러나 77年 5月 北傀는 인도네시아 密林의 산돼지 가운데
間或 発見되는 <돼지의 혹> 4個를 購入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산돼지 혹은 強力한 殺菌力이 있고 腫瘍治療에 特効가 있는것

으로써 高価로 알려진 山돼지 혹이 金日成의 혹治療를 위한 것임
은 事實일 것이다.

얼마後 6月과 7月에 北傀를 訪問한 外國使節團을 迎接하는 金
日成의 얼굴에서는 또 하나의 異變이 나타났다.

右側 관자놀이에 鷄卵크기만한 혹이 새로 돋아난 것이다.

또 하나의 特異한 事實이 나타났다. 77年 4月 7日부터 5月 4日
까지 北韓을 訪問하고 4月 25日 金日成과 會見한 朝總聯 副議長
李珍珪는 日本으로 돌아와 北韓訪問 報告會를 가졌다.

李珍珪의 報告演說가운데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後繼者는
首領님 生存期間에 直接 오랜 時日을 들어서…………』

『首領님도 人間이다. 지금까지는 오직 首領님의 萬壽無疆이 念願
이었다』(註 12)

이처럼 金日成 生命의 有限性을 指摘하고 金日成역시 平凡한 人
間이라고 認定한 것은 처음이다.

金日成의 健康問題를 正確하게 断定할 수는 없으나 그의 健康問
題가 深刻한 段階까지 惡化되었다는 것은 짐작된다.

結局 北傀가 後繼問題를 本格的으로 推進시키게 된 直接的인 動機
가 金日成의 健康惡化에 있다는 것은 確實하다. 金日成은 回甲을
앞두고 健康의 惡化를 意識하였고, 71年에는 목뒤의 혹이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惡化되어 自己의 老衰와 壽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後繼問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30 歲도 되지 않은 아들 金正一에 對한 權力世襲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 金正一은 黨組織指導部 副部長이었으나, 71 년에는 宣傳煽動部長을 兼하게 하였고, 經濟建設과 大衆動員의 經驗을 쌓게 하려고 73 年 2 月, 3 大革命小組를 創設할 때, 金正一을 總責任者로 내 세웠다.

3 大革命小組는 元采 72 年에 始作된 것이다. 72 年初 北傀黨은 殷栗鉉山의 生産計劃을 1.5 倍로 超過遂行하도록 要求하였다. 그러나 鉉山幹部들은 도저히 不可能하다고 끝까지 拒否하였다.

金日成은 黨幹部, 技術者, 大學生들로 集中指導구를을 編成하여 殷栗鉉山에 派遣하였다. 이 구를을 指揮한 것이 바로 金正一이었다.

400 餘名の 이 集團은 모든 幹部를 1 對 1 로 따라다니며 24 時間의 生活과 活動을 監視하였다. 또한 구를內의 젊은 學生들로 突擊隊를 編成하여 勞動者의 앞장에 세웠다. 資材와 勞動力이 無制限으로 投入되었다. 近 1 年間の 突擊으로 生産計劃을 1.5 倍로 達成한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다. 73 年 2 月, 金日成은 이들의 活動經驗을 決算하는 大規模會議를 열고 이때부터 모든 單位에 中央黨直屬의 구를을 派遣키로 하고 이를 三大革命小組라고 불렀던 것이다.

非黨員인 젊은 學生까지 網羅된 小組는 現地의 黨幹部에게 命令을 하고 幹部를 解任하거나 即席에서 새로 任命하는 非常大權을 휘둘렀다.

이 過程을 通해서 金正一에게 直屬된 4萬餘名의 새로운 政治勢力이 地方黨과 經濟, 行政部門을 席捲하며, 中下層 幹部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加하였다.

中央을 除外한 中下層 統治體制가 三大革命小組에 依해서 左右되고 이들을 金正一이 總指揮하므로써 金正一의 指導權은 우선 中下層에서 자리들 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北傀幹部들은 金日成의 意中을 알아차리고 金正一을 「親愛하는 指導者同志」라고 부르기 始作하였다.

73年 8月 日本을 訪問한 萬景台芸術團員들이 「親愛하는 指導者 金正一同志」라고 부른것이 金正一 後繼問題를 世上에 알린 첫번째 契機가 되었다.

攻撃對象의 下層으로 먼저 浸透하여 上層을 孤立시키는 共產革命의 一般의 原則에 따라 金正一보하여금 北傀權力的 中下層 既存土台를 掌握하도록 하는데 成功한 金日成은 얻어진 成果를 組織에 依해서 確認 鞏固化하고 나아가 金正一 後繼指名을 黨의 이름으로 既定事實化하는 두번째 對策을 講究하였다. 그것이 73年 9月,

長長 14 日間に 걸쳐 開催된 党 5 期 7 次全員會議이다.

이 會議의 議題는 ①三大革命 遂行情形에 對하여 ②獨立採算制를 正確히 樹立할 것에 對하여, 等 두가지이며, 金正一問題와 關聯이 있는것은 첫번째 議題이다.

이 議題는 結局 三大革命小組의 活動을 評價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金正一의 持導者로서의 評價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金正一을 党的 後繼者로서 適格者임을 立証하자는 것이다.

具體적인 報道는 없었으나 이 會議가 党全員會議의 歷史上 14 日間이라는 最長期間에 걸쳐 進行되었다는 事實은 前例없는 論爭이 나 或은 巧妙한 反抗이 일어나는 가운데 複雜한 難題를 討議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後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 會議에서 처음으로 金正一을 党 秘書로 任命하고 後繼者로 指命한 것이다. 따라서 그 複雜하고 微妙한 問題란 다름아닌 金正一 後繼指名이라는 前例없이 重大한 問題였음이 明白하다.

일단 後繼指名이 決定되면 後繼者에게 後繼體制 編成이 一任되는 것이 當然한 일로서 5 期 7 次全員會議 直後부터 벌어진 北傀內의 大規模의인 人事異動을 金正一 後繼者 擁立體制的 構成作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會議直後인 9月20日, 李根模, 鄭準基, 洪成南等 技能엘리트들이 副
總理로 任命되고 10月12日에는 軍의 總政治局長 韓益洙가 解任되
었으며 後任으로 金正一의 外家側 아저씨가 되는 李勇武를 任命하
였다.

이것은 政治的 發言權을 行事하는 政治幹部는 金正一 直系勢力으
로 補強하고 政治的 發言權이 없는 經濟 및 管理部門은 日수록
新進을 起用한 것이다. 이와 같이 党 5期 7次 全員會議는 後繼者指
名과 後繼者 擁立体制 構築의 一大轉機를 마련한 會議였다.

黨과 政務院에서 權力世襲體制를 構成하면서 金日成의 또 하나의
不安은 軍部였다. 후루시초프가 軍部の 支持를 背景으로 말렌코프
를 逐出한 것처럼 共產圈의 權力繼承에서 軍의 向背는 重大한 意
義를 가진다.

이러한 意味로 볼때, 73年 10月 初旬에 열린 「人民軍 指揮官
및 政治일꾼 熱誠者會議」는 金正一後繼體制 擁立이 主되는 目的가운
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會議에는 北傀軍 將校의 거의 全部라고 해야 할 2萬餘名이
參加하였고, 會議는 이른바 戰爭勝利의 5大要因을 말만 바꾸어서
課業으로 提示하였다.

그러나 結論的으로는 『全軍 指揮官 및 政治일꾼들은 모든 区分隊에 唯一思想体系가 꽂 들어차게 하고……区分隊를 金日成 同志에게 無限히 忠實한 붉은 隊伍로 만들 굳은 決意를……』(註 13) 다지는 것이 主目的이었던 것이다.

이는 後繼者問題로 因한 内部의 動搖를 鎮壓하고 軍部の 忠誠을 確保하므로써 後繼擁立体制의 基礎를 다지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金英柱의 8.28 声明으로 對話가 中斷되고 南北關係가 對話以前보다 오히려 硬化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韓國側으로 부터는 些少한 軍事的 刺戟도 加해지지 않았고 그토록 大規模의 軍事會議를 開催할 必要性도 없었다.

會議直後인 10月下旬 北傀가 黃海道에 前線司令部를 設置하고 挑發的인 實踐訓練을 敢行하는가 하면 休戰後 한번도 拳論되지 않았던 西海 5島에서 領海權을 걸고 나선 一連의 動向등을 綜合하면 軍熱誠者會議는 어떠한 情勢에 対処하려는 것이 아니라 金正一 後繼体制 確立의 一環인 可能性이 더욱 濃厚하다.

74年에 들어서자 2月15日 党的 實權을 行使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全英柱가 政務院 副總理로 轉出되고 2月19日 張吉夫 葬禮式을 비롯한 各種行事에서 激烈한 序列變動이 反復되었다.

이것은 73-74年期間 金正一後繼問題로 批判과 反撥이 存続하였다.

는 것을 示唆한다.

이와같이 金正一後繼体制의 基礎를 構築하는 作業에 專念하던 北
傀는 75年에 들어서자 金正一後繼体制를 公式化하기 위한 準備作
業을 始作하였다.

年初 1月8日부터 15日까지 繼續된 農業大會에서 있었던 金日
成의 演說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우리 党은 73年부터 農業部門에 劃期的措置를 取하였다』

『党을 위해서라면 生命이라도 바칠 覺悟가 되어있는 일꾼으로
党을 強化』

『이런 措置를 取한 結果, 党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와 宣傳煽動部
의 役割이 한層 높아졌다』

『全世界가 兇作일때, 우리만 大豐을 거둔것은 党中央의 措置가
正確하였기 때문이다』

『幹部의 官僚主義가 없어진 것은 三大革小組의 役割이다』

『이 모든것은 党中央이 最近二年間 全党, 全人民, 全軍을 主体思
想으로 武装시켰기 때문이다』(註14)

金日成이 指摘한 「73年부터」 「最近二三年間」 「党中央의 措置」
等은 73年9月부터 党秘書로 党的 實權을 金正一이가 掌握한 事
實과 一致하며 党中央의 措置 亦是 金正一의 活動成果를 가리킨다

는 것은 누구에게나 明白하다.

「三大革命小組의 成果」도 金正一의 功勞를 가르킨 것이다.

即 74 年の 豊作과 党内的 成果는 全部 金正一의 德沢이라는 것이
다. 더욱 刮目할 事實은 金正一이가 이미 部長으로 있는 組織部
와 宣傳部를 名称까지 거들면서 讚揚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金
正一의 權威를 높여주기 위한 金日成의 言動이 더욱 露骨화된 것
을 보게된다.

74 年은 東部아시아 全域에 豊作이 들었고 北韓에만 局限된 것
이 아니다. 農業大會에서 金正一을 讚揚하던 金日成은 뒤이어 2
月 11 日부터 党 5 期 10 次 全員會議을 開催하고 이번에는 党的 公式機
構를 통해서 金正一 評價를 試圖하였다.

이 會議에서 金日成은 『党指導下的 三大革命小組運動은 ……
社会主義建設에서 새로운 一大昂揚을 일으킨 革命的 運動이며, ……
社会主義, 共產主義運動의 歴史的인 變革』(註 15)이라고 더욱 極
端的인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便으로

『國家, 社会生活에 對한 法的統制 強化』

『三大革命 遂行을 阻礙하는 雜鬼神을 反對하여 鬪爭』

『首領님의 革命思想을 反對하는 反党的 反革命的 思想潮流를 反對

하여 斷乎히 鬪爭하라』(註 16)는 口號가 發表된 것도 이 會議였다.

權力에 依한 法的 強制와 強權發動이 黨會議에서 強調되었다는 것은 이 時期에도 아직 三大革命小組와 金正一指導體制에 對한 反抗이 政治的 方法으로는 鎮壓하기 어려울만큼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1 月の 農業大會와 2 月の 黨全員會議에 이어 3 月 4 日에는 工業 熱誠者會議가 열렸다. 이 會議에서도 金日成은 三大革命小組를 讚揚하는 가운데 『잠자고 있던 組織이 活潑히 움직이게 되었고』『뒤떨어졌던 青年과 複雜한 階層의 青年을 改造하는데서 轉變』이 일어났다고 強調』하였다.

이러한 讚揚은 三大革命小組가 人間改造에서도 成果를 올렸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친것이 아니다. 金日成은 小組의 成果를 羅列하던 끝에 『一部일꾼들 속에서 發展된 나라를 崇拜하던 思想이 散散히 부서졌다』고 公言한 것이다.

「一部일꾼」이란 行政經濟部門의 古參幹部들 指稱하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이데올로기를 떠난 經濟協力の 必要性을 主張한 勢力이 있다는 것을 示唆한 것이며 이들이 決定的인 打撃을 받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會議에서 金日成은 『이 모든 活動은 党中央과 秘書局의 業績』(註 17)이라고 또다시 秘書局을 指稱하였다. 秘書局을 指稱한다는 것은 73年以來 秘書局을 指揮해온 金正一을 指稱한 것이다.

73年 3月의 이 會議를 高비로 金正一의 노래인 「代를 이어 忠誠하십니까」가 義務的으로 普及되었고, 三大革命小組는 『90%가 青年인테리로 構成』(註 18) 되었다는 것이 宣傳되었다. 世代交替를 公言하였다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金正一은 党에서 組織指導부와 宣傳煽動部를 掌握하는데 그치지 않고 9月에는 金仲麟까지 밀어내고 對南事業 担当秘書까지 兼하여 党中央의 要職을 모조리 独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後 金正一 後繼體制 構築을 서둘던 北韓에 尋常치 않은 첫번째 徵候가 나타난 것은 75年 12月이었다.

12月 25日 <산토메 푸린시페> 大統領을 直接 迎接한 金日成은 이날以後 76年 3月까지 公式席上에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오래前부터 親분이 두터웠던 周恩來가 死亡하고 平壤駐在 中共大使館에 設置된 殯所를 北傀의 모든 幹部가 間喪할 때에도 金日成은 나타나지 않았다.

76年 3月 平壤을 訪問한 NHK 뉴스센터 編輯局長 一行은 그들

一行가운데 肝炎患者가 있다는 터무니 없는 理由로 金日成面談을 拒否당하는가하면, 日本人 商社代表들에게도 出国을 要求하였다. 其他 外国代表團의 入国도 北傀의 要求로 延期되거나 取消되었다.

3月7日에 變死한 南日의 殺害說과 崔賢의 叛亂說이 나돌았고, 4月29日에는 第2人者인 總理 金一을 閑職인 第一副主席으로 轉任시키고 朴成哲을 總理로 任命하였다.

더욱 衝擊的인 것은 75年4月以後 公式的으로 金正一崇拜運動을 벌이던 朝總聯에게 突然 中止가 命令된 것이다.

平壤에서는 金正一의 寫真을 除去하였고 8.18 板門店事件 以後에는 金正一 失脚說까지 나돌았다.

9.9節 北傀政權 創建日인 行事に 參席하려던 韓德銖를 비롯하여 朝總聯 3個代表團의 入国도 取消되었다.

75年末부터 76年9月까지 사이에 벌어진 事件을 綜合하면 여기서 한가지 確実한 것은 北傀內에서 金正一 後繼問題 反抗勢力과 獨走에 反撥하는 激烈한 權力鬭爭이 있었다는 事實이다.

南日是 72年 金日成 回甲을 大規模 國際行事로 準備할 때, 이를 正面에서 沮止한 張本人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金正一 後繼問題에 正面으로 反旗를 들었다는 說은 可能性이 充分하다.

生命을 걸고 金正一 後繼問題를 批判할 수 있다는 性格上 特徵으

로 이루어 崔賢의 失脚도 老衰뿐만이 아닌 權力鬭爭의 한 部分으로 認定된다.

이렇게 하여 後繼體制 確立에 制動이 걸렸고, 이러한 內部事情의 漏泄을 防止하기 위해서 北韓을 外部世界로부터 閉鎖한 것이 分明해 진다.

金正一 後繼問題로 昏迷를 거듭하던 76年9月부터 後繼問題를 다시 強行하기 始作한 77年10月까지 사이에 北傀에게 衝擊을 줄 수 있었던 事件은 中共의 76年10月 強硬派 肅清이다.

江青을 비롯한 強硬派가 肅清되고 經濟發展과 合理主義를 追求하는 華體制가 서고, 뒤이어 鄧少平의 復權이 實現되어 中共의 變質을 示唆한 것이다.

『4人무리의 文化的獨裁를 짓부신 中國의 文化藝術部門에서는 百花가 滿發하는 局面이 다시금 造成되고 있다. ……希臘神話, 섹스피어, 하이네, 발자크유고의 代表的 作品들과 베토벤, 쇼팡 등의 피아노曲들이 出版될 것이다』(註19)

이러한 中共의 오늘을 數年前과 比較해도 今昔之感을 느끼지만 이러한 變質은 76年10월에 이미 豫想할 수 있었다.

76年11월부터 北傀의 對內宣傳은 「帝國主義에 對한 非妥協精神」을 強調하기 始作하였고 12月에는 「帝國主義 思想文化의 浸透을

防止하자」는 더욱 意圖적인 宣傳으로 硬化되어 갔다.

『帝國主義 思想文化 浸透는 武力侵略에 못지않게 危險하며』

『새 世代는 資本主義에 感染되어 타락하고 革命成果를 破壞한다』

『이를 防止하는 鬭爭은 社會主義의 運命을 左右한다』

『唯一思想과 어긋나는것은 비록 些少한 것이라도 思想戰을 展開하여 한치의 讓步도 하지 말아야 한다』(註 20)

이제 北傀宣傳이 누구를 指稱하는것인지 明白하다.

紅衛兵이 傳統的인 모든것을 破壞하고 심지어 地名까지 바꾸던 中共에서 셰스피어와 하이네의 作品을 出版하고 소련에서는 재즈와 포크송의 流行을 許容하는 것이다.

65 歲의 고개를 넘어선 金日成은 國際적으로도 孤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77年 1月부터 「一片丹心 代를 이어 忠誠하자」는 宣傳을 再開하였다.

이제 더 以上 무엇을 考慮할 수 없게 된 北傀는 權力世襲을 合理化하는 本格的인 作業에 着手한 것이다.

그리하여 77年 7月에는 金正一이 幕僚들을 帶同하고 板門店에 나타나 처음으로 自身을 露出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5. 金日成死亡後 北傀에 미칠 外部的 影響力

金正一後繼體制를 確立하려는 作業은 金日成이 生存하는 全期間을 通해서 繼續될 것이지만 金正一의 權力世襲을 國際的으로 公認받으려는 努力은 쉽게 達成되지 못할 것이다.

76年 11月 北傀를 訪問하여 金日成과 面談한 日本作家 “小田, 実”가 金日成에게 後繼問題를 質問하였을 때 金日成은 『우리나라의 後繼者問題에 對해서 말이 돌고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아직 젊고 이제부터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後繼者問題를 論議할 必要는 없다. 더구나 革命家는 後繼者問題를 論議하지 않는 法』이라고 示침을 뒀다.

30-40年 以上の 革命經歷을 가진 上層幹部를 제쳐놓고 아들에게 權力을 世襲시키는 것이 어떠한 名分으로도 正當化될 수 없다는 것을 金日成도 알고 있는 것이다.

北傀가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는 것은 우선 中共과 소련이다. 中共은 北傀가 自主路線을 宣布한 66年 8月부터 北傀를 修正主義 機會主義等으로 批判해 왔다.

66年 10月 5日 北傀黨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어느 党은 우리가 두 椅子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正確하게 맑스·레닌主義 椅子에 앉아있다』(註 22)

『어느 党』이라는 것은 中共을 가리킨 것으로써, 中共은 그 後에도 北傀의 兩面 술타기外交를 警戒하여 왔다.

75年 5月, 中共外相黃華는 天津公安委員會 秘密會議에서 『두 배에 兩다리를 걸치면 結局은 물에 떨어지고 만다』고 北傀를 非難하였다. 이때 黃華는 韓半島에서 戰爭이 勃發하는 境遇, 北傀가 確固하게 反소政策을 施行하지 않는限, 軍事的 支援을 할 수 없다고 斷言하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北傀는 『모든 党은 平等해야 한다』(註 23)는 原則대로 中소의 二重隸屬에서 孤立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77年 9月 平壤에서 開催된 主体思想 國際討論會에서는 『現時代는 金日成主義 時代』 『非同盟運動은 現時代 反帝鬪爭의 決定的 要因』等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主導權을 엿보는 北傀企圖가 나타났다.

더구나 맑스·레닌主義를 不完全한 理論이며 『이를 補完한 것이 金日成主義』(註 24)라는 強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對한 첫번째 反響은 소련에서 나오고 있다. 모스크바放送에 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羅列되고 있다.

『 10月革命의 思想은 朝鮮人民에게 解放의 길을 가르켜 주었다 』

『 朝鮮共產主義者들은 레닌의 民族解放鬪爭에 關한 戰略戰術을 따
라 鬪爭하였다 』

『 소聯軍이 日本 關東軍을 擊破하므로써……北朝鮮革命의 條件이
주어졌다 』

『 朝鮮政權 樹立은 10月革命으로 始作된 世界革命의 한 構成部
分이다 』

『 現時期 反帝鬪爭의 決定的 要因인 世界 社會主義體制는 더욱
強化될 것이다 』 (註 25)

이와같은 소聯의 主張을 金日成主義 宣傳과 比較하면 모든 句節
이 北傀宣傳을 反駁한다는 것이 明白하다 .

『 金日成은 1930年 6月 <카툰>會議에서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
命과 抗日武裝鬪爭, 그리고 朝鮮共產黨 創建路線을 提示하였다 . 이
리하여 抗日武裝鬪爭은 金日成의 主体思想에 基礎한 革命路線을 따
라 展開되었다 』

『 15 餘星霜에 걸친 金日成의 抗日武裝 鬪爭으로 民族解放의 革
命課業이 빛나게 達成되었다 』

『 解放後 金日成은 主体思想에 基礎하여 革命的인 黨을 創建하였
고………自主的 人民政權을 樹立하였으며 人民民主主義革命을 完成시

켰다』(註 26)

이와같은 北傀의 主張은 金日成의 兩面外交를 正当化하려는 所謂 主体思想의 理論定立 過程에서 造作된 것이며 金日成이 살아있는 지금부터 이미 深刻한 理念上 對立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물며 金日成이 死亡한다면, 後繼執權者에 對한 中소의 壓力은 이데올로기分野에서 보다 露骨的으로 보다 公開的인 形態로 強化될 것이다. 이러한 周邊情勢의 壓力이 決定的인 것으로 되었을 때 金日成主義 하나로 굳어진 北傀의 이데올로기 體制는 重大한 混亂을 겪게 된다.

人間이 存在하는데 必要한 모든 側面을 金日成主義 하나로 規制한 北傀가 外部的인 壓力이 아무리 強하다 하더라도 쉽사리 이데올로기를 修正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北傀政權이 存立하는 根幹이 바로 金日成主義이며 더구나 金正一 世襲權力의 存在理由이기 때문이다.

金日成死亡後 後繼執權者가 當面할 두번째 外部壓力은 金日成없는 北傀를 제각기 自己편으로 끌어들이려는 中소의 介入이 될 것이다.

解放後 北傀는 相當數의 留學生을 소聯과 其他 東歐圈으로 보냈고 이들은 지금 北傀體制內에서 文化, 經濟部門의 核心이 되어있다. 少數나마 中下層 政治分野에서 發言權을 行使하기도 한다.

또한 中共이 信任하는 軍事幹部와 소聯의 軍事教育을 받은 指揮官들이 多數를 차지한다.

北傀에 對한 中소의 浸透은 应当 이들 人脈을 通하여 試圖될 것이며, 이에 따른 政策論爭은 政權承繼作業의 初期段階에서 벌어질 이데올로기와 政策論爭에 相乘作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共產主義者가 그토록 목마르게 바라던 党的 統一과 團結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이룩되었다』(註 27)던 金日成, 中心의 政治的 統一성에 龜裂을 發生시킬 充分한 可能性이 있다.

1968年 11月 金日成의 4大軍事路線을 反對하다가 肅清을 당한 金昌奉, 許鳳鶴, 崔光 3名의 大將이 數10年間 金日成과 生死를 같이 하던 所謂 革命傳統派의 骨隨分子이며, 이들은 例外없이 소聯의 軍事아카데미 出身이었다.

이러한 事實은 金日成 없는 北傀의 上層系列에서 中소들 背景으로 激烈한 分派鬪爭을 再燃시킬 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이다.

또한 北傀를 自己便으로 密着시키려는 中소는 北傀에 對하여 競爭적으로 적지않은 援助를 約束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中소는 援助의 代價로서 제각기 追從을 要求할 것이며 이것이 北傀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크면 클수록 上層內의 論爭을 加速化시킬 原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中소가 文化的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側面에서 北傀는 中共에 偏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華国鋒-鄧少平 体制가 安定되자 文化面에서 刮目할 變化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이미 紹介된 바와 같이 中共에서 毛沢東 生存時에는 想像도 할수 없었던 하이네의 사랑의 詩가 共産党에 의해 出版되는데 까지 이르는 것이다.

소聯에서는 이미 오래前부터 찌즈와 맘보가 流行하고 暗市場에서는 自由世界의 文学作品이 날개가 돋친듯이 팔리며 最近에는 팝송 센타까지 設置하였다. 이러한 中소의 文化를 完全하게 防止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러한 것들이 北韓에 浸透될 때, 政策修正을 要求하는 밑으로부터의 壓力은 지금까지 問題되지 않았던 正統性危機가 重大事態를 豫見케 하는 不安을 造成할 것이다.

金日成 後繼体制가 当面할 外交面의 세번째 딜렘마는 周辺情勢의 變化와 安保問題의 相衝으로 나타날 것이다.

北傀가 自体 安全保障의 最大의 基盤으로 삼는것은 中, 소와의 軍事同盟이다. 이 軍事同盟은 50年代 - 60年代에 걸친 兩極的인 冷戰体制下에서 成立할 수 있었고 中 소紛争 發生以後에는 北韓이 차지하는 戰略的 位置의 重要性때문에 中·소에게 다같이 必要性을 提示하므로써 維持되어온 것이다. 닉슨닥트린以後, 冷戰体制가 勢力 均衡体制로 變轉하는 가운데 美國을 意識한 同盟体制의 意義를 크게 弱화시켰다. 이제 남은것은 北韓이 차지하는 地政學的 位置가 中·소 紛争에 重大한 意義를 가진다는 한가지 事實뿐이다.

北傀가 蘇聯과 密着하고 蘇聯軍이 韓滿國境에 壓力을 加한다면 이것은 中共에게 重大事態로 된다.

反對로 蘇聯에게 있어서 北韓地域은 美-中共聯合의 對소包圍를 突破하고, 極東에서의 南下政策을 實現하는 橋頭堡로서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이러한 條件을 따라 北傀는 中共에 傾斜한 兩面外交로 軍事同盟을 維持하고 中·蘇援助를 함께 받아왔다.

그러나 中·蘇間의 戰爭勃發 可能性을 가까운 將來의 現實問題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보다는 美國과의 勢力均衡이 보다 重要한 意義를 가지며 勢力均衡 政策은 韓半島를 強大國間의 勢力均衡線으로 變質시켰다. 따라서 北傀의 戰爭企圖은 아시아에서 勢力均衡의 全面的 破壞와 再編成을 爲한 國際的인 熱戰을 誘發할 수 있다.

이러한 事情으로 北傀에 對한 中·蘇의 援助는 一定한 限界性을 갖는다. 金日成은 金正一 中心의 後繼體制를 準備하면서 이들에게 特別한 好戰性과 極烈性을 하나로 屬性化시키려는 試圖를 늦추지 않고 있다.

金正一 後繼指名後 北韓에서 흘러나온 極烈한 口號들은 北傀가

準備하는 後繼体制의 無冒한 好戰性을 示唆한다

이러한 後繼体制의 好戰性은 金日成 死亡後 中·蘇의 對北傀 牽制
와 韓國 軍事力增強을 刺戟하여 強大國의 介入을 誘導할 수 있다.

金日成 死亡以前에 強大國間의 勢力均衡政策과 中·蘇紛争에 終熄
이 오지 않는限, 後繼執權者가 企圖하는 極烈한 軍事政策은 制裁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制裁는 北傀에게 견디기 어려운 軍事費 激
增과 이에 따른 經濟發展의 停滯를 不可避하게 할 것이며, 金日成
死亡後 權力承繼에 또 하나의 무거운 負擔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金日成 死亡後 後繼執權者는 國際的으로 金日成主義
에 對한 挑戰과 中·蘇의 露骨的인 內政干涉 그리고 軍事政策에
對한 強大國의 牽制等으로, 金日成에게서 承繼한 리더쉽의 全面修正
을 強要당하게 될 것이다.

6. 金正一의 리더쉽과 權力構造의 向方

金日成의 死亡은 中·蘇의 介入을 促進시키고 對外的인 危機를
몰고 올 것이지만 本質的으로는 内部的인 危機要因도 深刻하게 作
用할 것이다.

元來 統治權力的 世襲은 封建君主制에 特有한 屬性으로서, 그것은
共產主義者들도 激烈하게 憎惡해오던 것이다.

『中世紀의 封建的 抑壓의 源泉으로 된 것은 人民에게서 土地를
収奪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人民을 土地에 從屬시키는 것이었다.
農民은 自己에게 맡겨진 土地의 農奴, 또는 體僕으로서 그 土地의
附屬物로 看做되고 勞役 및 生産物로서 年貢을 領主에게 바치는
義務를 強要當하였다』(註 28)

이러한 領主의 特權과 所有權과 身分을 自己 子息에게 繼承시키
는 것이 곧 統治權力的 世襲이라고 理解하여 왔다.

이렇게 憎惡에 가득찬 教育을 받아왔고 하나의 固定觀念으로 굳
어진 共產主義者들이 金正一의 權力世襲을 支持하는 것은 服從해야
生存할 수 있고, 反對하지 못하는 北傀體制에 依하여 強要當하기

때문이다.

이 強制力은, 政治가 人格化된 金日成体制의 所産物이며, 金日成의 死亡은 곧 客觀的 強制力の 消滅을 意味한다. 이때 金正一의 權力世襲에 對한 北傀幹部들의 態度는 그들의 主觀的인 이데올로기와 利害關係에 따라 左右되고 여기서 北傀幹部들의 分裂이 始作된다.

幹部들의 分裂을 不可避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要因은 金正一 權力承繼作業의 特殊性에서 비롯된다.

共產圈 各國의 權力承繼에서는 首領의 權威維持를 爲하여 後繼者에 對한 權力移讓을 最少로 줄이는 것이 一般的 現象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아들에게 權力을 世襲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金正一은 30代初부터 莫大한 權力을 휘두르고 그의 政治權威를 하루 速히 쌓아 올리려는 燥急한 作業이 強行되어 왔다.

30代의 金正一은 數十年의 革命經歷을 가진 幹部들을 去勢하고 要職을 独占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 北傀의 老幹部들은 金正一의 親衛隊인 三大革命小組에게 數十年 쌓아 올린 政治基盤을 剝奪당하였다.

더구나 北傀의 權力承繼는 金正一을 頂点으로 하는 世代交替를 前提로 하고 既成 政治幹部去勢를 公開的으로 推進한다.

이러한事態가 앞으로 數年間 繼續된 다음에 金日成이 死亡한다면, 老年, 壯年, 青年層을 網羅한 均衡과 政治的 正統性이 破壞될 것이다.

이것은 먼 앞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兆朕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最近 北傀의 宣傳機關들은 前에 볼 수 없었던 世代間的 團結問題를 자주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黨은 老革命家들과 오랜 黨員들, 새로 자라난 世代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信念, 主体思想의 意志대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全一的 隊伍로 結束되었다』(註 29)

이것은 비록 勞動新聞 社說에서 처음으로 論議된 것이 아니다, 무엇때문에 世代間 團結問題를 몇십번씩 強調해야 할 것인가?

왜 이러한 時期에 와서 갑자기 世代問題가 論議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三大革命小組를 앞장세운 金正一에 依하여 老幹部와 中堅幹部가 쫓겨나고 그들속에서 政治的 抗拒의 움직임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權力世襲에 對한 既成幹部들의 反撥은 73年부터 累積되었고, 累積된 反撥은 金日成의 死亡을 契機로 公開的인 分裂과 抗拒의 要

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金日成死亡後 金正一의 權力繼承이 實現된다 하더라도 金正一體制가 逢着하는 对内面의 두번째 難關은 技能엘리트의 進出이다.

金正一後繼體制를 準備하는 過程에서 既成 政治勢力을 政策的으로 去勢하였고 金日成의 死亡時期에는 모두 60代를 넘은 革命一代가 거의 同時에 退場하게 된다.

現在, 北傀黨 政治委員會와 秘書局 멤버들은 大部分 60歲를 넘었고, 이들이 全部 退場한 다음 空白을 메꿀 同質의 革命幹部는 매우 貧弱하다.

이 空白을 充當할 幹部는 解放後 北韓에서 成長한 課業엘리트들로서, 지금은 이들이 政治幹部에 寄生하고 있으나, 金正一體制下에서는 이들을 政治幹部로 起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政治的 發言權을 許容하면 그들의 合理主義 要求가 政治的 次元에서 強調되고 金正一의 過激한 絶對主義는 障壁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煽動성과 政治性이 강한 新進勢力만을 包摂하고 課業엘리트의 進出을 抑制하면서 大衆總動員과 突擊勞動에만 依存하는 것은 80年代의 國際經濟 體制에서는 北傀經濟의 退步와 危機

를 물고 올 것이다.

結局, 金日成死亡後 革命經歷이 없는 經濟部門의 技能幹部와 政權機關의 新進官僚들이 政權上層으로 浮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大勢의 흐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課業엘리트의 進出은 金日成이 아직 健存한 現在狀態에서도 벌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崔庸健을 비롯한 數名の 革命世代가 死亡하거나 病席에 눕고 그들의 뒤를 이은 者들은 大部分 課業엘리트들이다.

76年 12月부터 77年 3月까지 사이에 異例的으로 拔擢된 者들 가운데서 軍人을 除外한 4名은 모두가 課業엘리트들이다.

金煥, 李鍾國, 桂元泰, 孔鎮泰 등은 모두가 重工業, 水産業, 貿易部門에서 長期間 活動해온 課業엘리트들이다. 特히 李鍾國은 “할빈” 工科大学을 卒業한 인텔리層이다.

難局에 處한 北傀의 經濟는 政治的 運命을 左右할 만큼 深刻하고 이러한 經濟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은 革命1代의 權力指向型 幹部가 아니라 課業엘리트들이다.

課業엘리트는 北傀의 教育을 받았고, 實踐을 통해서 忠誠心이 檢閱된 者들이지만 이들이 習得한 專門知識과 實務的經驗은 合理主義

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이 權力上層에 進出한 다음에는 『生産力發展의 決定的 要因은 生産道具의 發展이 아니라 黨을 爲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大衆의 忠誠心』(註 30)이라고 하는 金日成主義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은 明白하다.

北傀는 이미 100萬인테리의 大軍을 養成, 確保했다고 豪言하나 이들이 金正一의 革命路線에 順從할 것인가 하는 것은, 金日成死亡後의 環境에 따라 各異하게 나타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가장 合理的인 出路를 追求하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課業엘리트들의 社会的 役割이 強化되고 이들의 合理主義 要求가 浮刻되면 될 수록 金日成主義의 非合理性과 獨善的인 本質이 露出될 것이다.

金日成은 極端的인 個人偶像化로 權威를 造作하고 權威에 依하여 全住民의 無條件 順從을 強制하여 왔다.

金正一은 黨權을 完全히 掌握하게 되면 그의 天性的인 冒險主義와 傲慢, 固執, 過激性等이 더욱 助長되고, 自己의 權威를 確立하기 爲하여 強硬政策을 持續시킬 것이다.

그러나 金正一의 政治的 權威가 全住民을 無條件 服從시킬 만큼

絶对화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金正一의 權威를 確立하는 作業이 長期化되면 政治的 不安도 그만큼 繼續되고 權力承繼에 重大한 打撃을 준다.

그렇다고 하여 中·蘇의 压力과 内部的인 要求에 따라 金日成主義 体制을 變質시키거나 東歐 共產圏과 類似하게 合理主義 要素를 導入하는 것은 政治的 安定基盤을 스스로 破壞하는 것이다.

여기서 金正一은 重大한 딜레마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金日成死亡後 北傀가 맞이할 또하나의 危機는 党과 憲法上 權力 機關의 對立으로 나타날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의 理論에서 國家는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压迫하기 爲한 機構이며, 한 階級에게 爾余의 隸屬된 階級을 服從시키기 爲한 機構이다』. (註 31)

即, 階級鬭爭과 프로레타리아獨裁를 爲한 機構로 되어 있다. 또한 黨은 『國家의 最高 指導力이다』. (註 32)

따라서 黨은 國家機關을 指導하고, 國家機關은 黨의 프로레타리아獨裁를 執行하는 手段이며, 道具라고 規定한다.

共產圏 어느 나라에 가진 國家機關에 對한 黨의 指導權은 絶對的이며, 國家機關은 黨의 政策을 實現하는 行政的 強制力の 組織體

로 存在한다.

北傀의 境遇에도 党은 立法, 司法, 行政機關에게 命令을 하고, 이들 憲法機關이 党의 決定과 命令을 反對하거나 修正한 事例는 全혀 없다.

이러한 體制下에서 北傀는 金正一이 党權을 独占한 以來, 政權機關에 對하여 特別한 措置를 取하고 있다.

우선, 77年 봄부터 北傀 党의 中樞인 政治委員會 멤버들을 各道 人民委員長으로 任命한 것이다.

党序列 20番以內的 政治委員會 委員과 候補委員들은 党職과 政務院 副總理等 職責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주로 各道 人民委員長職을 兼任하고 있다.

이 措置는 두가지의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過去 30~40年間 金日成과 生死를 같이 하였고, 党内에서 強力한 發言權을 行事하며 金正一도 함부로 命令할 수 없는 重鎮級들이 地方으로 轉出하므로써 党에 對한 金正一의 獨自的 活動舞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地方 人民委員長으로 任命된 者들을 보면, 우선 滿洲共匪時代부터 長期間 金日成의 身邊護衛를 맡았고, 1968年以來 勞農赤衛隊 總司

令官을 지낸 大將 吳白龍이 党政治委員을 兼職하는 形式으로 平安
北道人民委員長이 되었다.

平安南道에는 6 個年計劃의 主役으로서 党政治委員과 秘書, 그리고
副總理를 兼하고 있는 李根模가 나갔다.

党政治委員會 候補委員, 党秘書, 副總理로서 北傀의 宣傳과 教育問
題를 担当하던 鄭準基는 平壤市人民委員長을 兼任하게 되었다.

党政治委員兼 重工業担当 秘書인 玄武 光은 咸鏡北道 人民委員長으
로 나갔고, 北傀軍 總參謀長으로 있다가 68年 11 月에 肅清된 崔
光은 다시 살아나 黃海南道 人民委員長으로 出現하였다.

中央의 最上層 幹部들을 地方으로 轉出시키는 措置는 아직도 繼
統되고 있다.

이들 重鎮級 幹部는 實際적으로 金日成의 오랜 친구로서 金正一
도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들의 權力을 奪取하여 格下
시키는 것은 오히려 金日成의 革命傳統을 損傷시키는 結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金日成 獨裁体制의 오늘을 構築하는데 앞장을 서
왔고 金日成死亡後 後繼者에 依하여 金日成의 리더십이 否定된다면,
그때 自己들도 危險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格下시킨 것처럼 金日成格下運動이 일어난다면 生存조차 許容되지 못할 者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金日成死亡後의 權力繼承을 노려 皮투성이의 鬭爭에 뛰어 들 能力도 없다는 것을 自認하는 者들이다.

最上層에 屬하는 이들 몇명의 老年層 幹部는 金正一의 權力世襲에 對하여 金日成과 同一한 利害關係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現地位를 保存하면서 地方으로 물러나 金正一에게 黨에 關한 裁量權을 맡기고 後繼體制를 하루 速히 完成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로 金正一의 黨權世襲을 容易하게 하기 爲한 方便으로서, 形式上 主權機關인 各級人民會議와 主權의 指導機關인 人民委員會, 그리고 執行機關인 行政 權力機關等 憲法上 機構의 地位를 一時的으로 強化하는 것이다.

共產圈의 權力承繼 過程에서는 從前까지 매우 形式的인 存在에 그쳤던 各級代議機關의 地位를 一時的이나마 強化하므로써 後繼體制가 獨裁를 緩和하는 것 같은 印象을 造成하여 住民의 支持를 誘導하는 事例가 있다.

또한, 相當한 範圍의 權力을 憲法機關에 移讓하고 黨權承繼의 比

重을 낮춤으로써 이에 대한 政治的 關心度を 調節하는 것이다.

實例로 1957年 폴란드의 <코물카>와 1968年 체코의 <두브
체크>, 1971年 폴란드의 <기에레크> 등은 自己가 党權을 承繼하
면서 從前까지 形式에 不過하였던 代議機關의 地位를 大幅 強化하
였다.

그러나 後繼權力이 安定되기 始作하면 代議機關에 移讓하였던 權
力を 하나씩 回收하여 다시 形式的인 機能으로 復歸시킨다.

후루시초프를 遂出한 브레즈네프는 트로이카式 集團体制를 標榜하
다가 自己의 基盤이 安定되자, 77年 10月, 憲法을 改正하고, 聯邦
最高會議 議長까지 自己가 兼任하였으며 第1副議長을 選出하므로써
1人獨裁로 復歸하였다.

이것은 獨裁權力的 循還論으로 說明될 수도 있으나 1人獨裁權力
의 承繼를 完成시키는 段階的인 戰術的 策略으로 보아야 한다.

最上層 幹部를 各道 人民委員長으로 任命한 北傀의 企圖도 이와
類似的인 것으로 解析될 수 있다.

党政治委員級의 幹部가 道の 人民委員長으로 赴任하였기 때문에
道党은 道人民委員長에 對하여 어떠한 統制도 不可能하며 中央党的
各級 專門部署들도 道에 對한 統制가 어렵게 되었다.

道人民委員長은 憲法上 道内の 經濟建設, 司法, 住民生活問題를 管掌하며 이에 對한 黨의 干涉은 不可能하게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事態는 道人民委員長 한사람 때문이며, 그가 中央으로 돌아가면 從前같은 黨權은 언제든지 回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道人民委員長은 黨中央의 政治委員과 秘書, 副總理等を 兼하고 있으므로 金正一과 密接히 連結되어 있으며 實際적인 中央統制는 더욱 強化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結局 一時的으로 權力이 縮少된 것은 道黨뿐이며, 한편으로는 黨의 直接的인 獨裁가 緩和된 것 같은 幻想을 造成시켰을 뿐이다.

또다른 徵候가 있다. 北傀는 今年에도 例年과 같이 今年度 計劃課題를 黨創建記念日까지 完遂하기로 決議하였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最高人民會議 6期選舉日인 11月 11日을 年間計劃 達成의 目標日로 變更하는가 하면, 黨創建記念日인 10月 10日 行事조차 省略하는 異例적인 現象을 보이고 있다.

經濟事情을 빨리 好轉시켜야 한다는 理由와 함께 全般的으로는 金正一 後繼體制 確立을 爲한 策動의 一環일 可能性이 濃厚하다.

앞으로 이 措置는 金正一 後繼體制가 確立되고 金日成死亡後 政

權世襲이 完成, 安定될 때까지 持續될 수 있다.

이 期間 동안, 北傀의 經濟建設은, 各道別로 人民委員會 責任下에서 進行되며, 表面上 党的 干涉이 훨씬 減少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體制가 長期間 持續된다면 各地方 行政機構의 權力이 徐々히 肥大해지고 中央에서도 最高人民會議의 地位가 強化될 것은 當然하다.

이러한 狀態에서 金日成이 死亡하고, 革命1代가 前後하여 退場한다면, 金正一의 權力世襲作業은 初期에 發生하는 外部의 壓力과 内部의 抵抗뿐만 아니라, 憲法上 權力機關인 各級 代議機關의 組織化된 對立勢力과 衝突할 可能性이 있다.

金日成과 金日成을 數十年 追從하던 直系勢力이 없어진 北韓에서 憲法上 權力機關의 機能을 縮少하고 그 權限을 黨으로 回收해 들이는 作業이 抵抗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全般的으로 革命傳統派의 勢力은 甚하게 弱화되고 幹部들의 分裂과 機能엘리트의 進出, 그리고 憲法上 權力機關의 抗拒等으로 力關係는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時期에 金正一을 비롯한 族閥勢力만으로 金正一 1人獨裁 體制를 當장에 構築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이러한 難関을 解決하는 唯一한 出路는 많은 共產國家가 그러했듯이 黨, 行政, 主權機關의 集團指導制를 採択하여 一旦 事態를 安定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金正一은 우선 黨權만이라도 掌握하는데 注力할 것이다.

集團指導制를 構成한 다음에는 이들 가운데서 中·蘇의 支持를 받는 特出한 人物의 뛰어난 策略이 成功하면 그가 黨權을 掌握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하여 1人獨裁로 還元될 때까지 北傀内部의 政治的 動搖는 繼續될 것이다.

그것은 解放後 30 余年間 1人獨裁 體制下의 生活이 習慣化된 北傀 政治勢力에게 있어서 트로이카式 集團指導는 그들 生理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權力에 對한 接近을 禁畧로 하고 權力을 獨占해오던 革命傳統派는 모두가 60 歲를 넘었다.

뒤에 남는 것은 課業엘리트의 大群이다. 이들 속에서 金正一의 權力承繼를 期待할 어떠한 保證도 없다.

7. 南北韓 關係의 展望

北傀가 對南政策을 体系化하여 이를 黨에서 正式으로 採択한 것은 64年 2月 勞動黨 4期 8次全員會議였다.

其後 65年 4月 인도네시아를 訪問한 金日成은 그곳 社會科學院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의 社會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에 對하여」라는 題目으로 講演을 하였는바, 이 講演에서 처음으로 三大革命力量이 公開되었다.

三大革命力量이란 첫째, 北韓의 社會主義力量, 둘째, 南韓의 革命力量, 셋째, 有利한 國際力量으로서, 이 세가지 力量이 準備되어야 統一이 達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赤化統一力量을 準備하는 모든 過程이 「平和統一」이라는 名分으로 強行된 것도 알려진 事實이다.

그리고 北傀가 말하는 <平和>의 本質은 68年 9月 金日成의 演說에서 明白하게 밝혀 졌다.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關한 우리의 主張은 美帝國主義와의 鬪爭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며, 怨讐들과의 그 어떤 妥協이나 社會制度의 平和的 移行에 關한 理論과는 아무런 共通性도 없다.

……그 具體的 方途가 어떻든지간에 祖國統一은 美帝侵略者들을 우리 疆土에서 몰아내고 南朝鮮政權을 때려 부신 다음에야 비로서 이룩될 수 있다』. (註 33)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平和의 本質이다. 北傀幹部들은 흔히 『革命이 平和的으로 되느냐, 戰爭의 方法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執權者들의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 그들이 政權을 拋棄하고 스스로 물러나면 革命은 平和的으로 遂行되나, 反抗하면 暴力과 戰爭의 方法밖에는 없다』고 한다.

또한 南北對話가 開始되고 共同聲明 發表를 하루 앞둔 72年 7月 3日 平壤放送에서는 『……南朝鮮革命에는 平和的 方法이란 없다. 革命家들은 이 原則을 銘心하고 鬪爭하여야 한다』 (註 34) 고, 暴力革命을 露骨的으로 強調하였다.

暴力으로 『政府를 顛覆하고 人民의 人士가 執權하면 平和統一이 可能하다』 (註 35) 는 金日成의 發言은 한두번만 公開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金日成의 南朝鮮革命論의 本質이며, 金日成体制의 名分일뿐 아니라, 金正一의 權力世襲을 正當化시키는 名分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生存하는 限, 南朝鮮革命論의 變化는 期待할 수

없으며 金正一의 政權承繼에 있어서도 南朝鮮革命論의 變質을 期待하지는 못할 것이다.

金正一이 黨事業을 唯一的으로 指導한다는 最近 數年間의 北傀의 對南動向은 金日成의 方針과 金正一의 指導下에 이루어진 赤化統一 工作의 結果로서 앞으로의 南北關係를 展望하는데도 重要的 根拠가 될 것이다.

金正一이 對南工作을 直接 가로막고 나선 것은 76年 4月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의 最大事件은 8.18 板門店 도끼蠻行이다. 이 事件으로 北傀는 外交面으로나 對南工作面에서 적지 않은 打擊을 받았으나 北傀는 이 事件을 오히려 美國에 對한 發言權行使의 契機로 利用하였고, 美國과의 直接對話를 交渉하는 名分으로 내세웠다.

이 事件以後 對南工作에서는 數個月間 小康狀態가 持續되고, 77年 7月에는 金正一自身이 板門店에 나타나 처음으로 世上에 自己를 露出시켰다. 10月에는 한때 南朝鮮研究所長으로 降職되었던 前對南担当秘書 金仲麟이 다시 公式席上에 나타나 그의 復歸를 示唆하였다.

나타난 一連의 事實을 檢討하면 金正一의 對南工作은 그의 本性

대로 猪突性과 暴惡性의 一面을 再確認할 수 있었고 77년에 들어 와서는 戰術面에서 相當한 變을 이르킨 痕跡이 歷々하다.

우선 76년에 比하여, 77년에는 韓國에 對한 直接 挑發보다, 第3國을 통한 迂廻工作이 顯著히 增加하였다.

이러한 變化의 背景에는 76年 8月 非同盟 頂上會議에서 當한 冷待와 9月의 外交官 密輸事件, 特히 77年 3月, 駐韓美軍의 撤収가 確定되는等, 北傀의 對南政策을 左右할 大事件들이 깔려 있다.

美軍撤収는 北傀에게 있어서 赤化統一의 最大의 條件이다.

韓國에 對한 直接的인 挑發은 美軍撤収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勢力均衡政策을 追求하는 中·蘇의 干涉까지 招來할 수 있다.

따라서 無冒한 直接挑發은 될 수록 抑制한 것이며, 주어진 情勢에 便乘하여 보다 効果的인 새로운 戰術을 發想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北傀는 70年代初부터 外國의 親北傀勢力을 買手하여 이미 90余個國에 500個以上の 反韓 親北傀團體를 結成하였고, 77년에는 이들을 指揮하는 國際本部를 結成하였다.

6月에는 北傀의 統一方案을 支持하는 「朝鮮統一支持 國際連絡委員會」가 結成되고 8月에는 韓國內의 反政府運動을 煽動하기 위한

「韓国民主化 國際連帶委員會」와, 海外 反韓系僑胞들을 網羅한 「民主民族統一 海外韓国人聯合」이 結成되었다.

北傀의 企圖는 反韓國 組織으로 韓國에 對한 國際的 包圍網을 構築하자는 것이다.

國際輿論을 造成하는 策動도 76 年에 比하여 顯著한 增加趨勢를 나타냈다.

外國의 매스콤을 利用한 各種宣傳은, 76 年에 比하여 10 個月間에 3,000 件을 肉迫하여 50% 以上の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부룬셀과 美國의 뉴욕에서 韓國을 非難하는 國際會議를 強行하는가 하면, 9 月에는 70 個國의 88 個代表國을 平壤에 招請하여 所謂 金日成主義 宣傳에 熱을 올렸다.

이렇게 造作한 輿論으로 駐韓美軍의 早期, 完全撤收를 要求하면서 韓國을 孤立시키고, 美軍撤收에 따른 韓國의 不安을 極大化하며, 이를 利用하여 韓國에 對한 統一戰線工作을 強行하자는 것이다.

外國人을 買手하여 對南間諜을 養成하는가 하면 15 歲未滿의 少年, 少女를 爲始하여 20 歲안팎의 女性等, 活動에 有利한 特殊間諜을 大量的으로 養成하며 強力하게 訓練된 계리라要員을 5 万名 以上으로 增加시켰다.

金日成의 「養兵千日，用兵一時」 方針에 따라 板門店 도끼 蠻行 以上の 殘忍無道한 大規模 挑發을 恣行할 万般의 準備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金正一의 工作方法이며 南北關係의 앞날을 示唆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金正一의 權力이 繼續되는限, 南朝鮮 革命論은 一時的, 戰術的 變化가 있을 뿐, 些少한 變質도 期待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金日成이 死亡하고 金正一의 權力世襲作業이 進行되면 列強의 干涉은 北傀의 對南政策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다.

中·蘇는 제각기 北傀가 어느 一方과 接近하는 것을 牽制하고 列強은 韓半島에 對한 누구의 独占도 容納하지 않는 勢力均衡政策을 維持할 것이다.

이러한 渦中에서 北傀는 「主体」의 名分을 維持하고 列強의 干渉을 排擊할 것이므로 4強會議는 期待하기 어렵다.

万若 4強會議가 實現된다 하더라도 이 會議는 두가지 解決策을 講究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現狀維持이며 다른 하나는 統一方案을 模索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分斷을 永久化하는 것이라고 하여 北傀가 이미 反對하고 있다. 따라서 現狀維持를 長期的으로 確保하는 길은 政治的인 방법이 아니라 軍事力의 均衡을 維持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두번째 方案에서 列強이 할 수 있는 役割은 對話를 통한 接近으로 平和를 維持하고, 長期的으로는 南北總選舉에 對한 國際的 監視程度外에는 어떠한 劇的인 轉換을 가져 올 수 없다.

특히 危險한 것은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政治的 方法으로 強要하였을 境遇, 이것은 오히려 자칫 熱戰을 誘發할 可能性마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韓半島를 南北으로 分斷시키고 列強管理를 規定한 알타會談의 結果가 韓國民族의 特殊한 民族主義에 依해서 拒否되고, 軍事的 均衡을 破壞하는 空白이 形成되자 民族内部의 戰爭을 誘發한 歷史的 經驗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結局 4強會議가 實現되더라도 거기서 얻어지는 結果를 左右하는 것은 軍事力과 이를 뒷받침하는 社會心理 및 經濟力等 總體的으로 는 힘의 均衡이다.

그러나 列強의 介入은 金正一의 權力世襲을 둘러싼 北傀幹部들의

이데올로기 및 政策論争에 또 하나의 불씨를 던져 줄 것이며, 軍事的 經驗이 전혀 없는 金正一에게는 무거운 負擔이 될 것이다.

7 個年計劃이 全面的으로 破綻되고 自主路線에 對한 中·蘇의 壓力이 加重되던 1966 年에 北傀가 韓半島問題에 關한 有関国会議를 自請해서 提議한 事實이 있다.

金日成이 死亡한 後 北傀에 對한 影響力을 扶植하려는 中·蘇의 努力이 激化되고 이것이 北傀幹部들을 分裂시키며, 中·蘇에 依存하는 安保體制가 危胎롭게 되었을 때에는 北傀가 4 強會議에 應할 可能性이 있을 것이다.

이때 北傀의 對南政策을 變化시키고 南朝鮮革命論을 變質시킬 決定的인 要素는 역시 韓國의 힘이다.

韓國의 힘이 北傀를 說得시킬 만큼 充分히 強力하고 北傀가 相對的인 劣勢를 痛感한다면 南朝鮮革命論은 처음에 戰術的으로 變化를 假裝할 수 있으나 힘의 對比가 더욱 不利해지면 本質的인 變化를 일으킬 것이다.

南北間의 對話와 休戰體制를 制約하는 것은 南朝鮮革命論이다.

어떠한 名分을 붙이건, 南朝鮮革命論의 變化는 南北關係에 變化를 가져 오고 中斷된 對話問題를 包含하여 美軍撤収 以後의 休戰體制를

平和共存体制로 變質시킬 契機가 될 것이다.

金正一의 權力承繼危機와 強大국의 干涉, 그리고 韓國의 軍事的인 絶對優位, 이 세가지 要素가 複合될 때, 南北關係 變化가 可能할 것이다.

北傀가 軍事的 劣勢를 自認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強大국의 介入을 阻止하기 爲해서 提唱하는 名分은 民族自決이다.

北傀는, 民族自決을 『政治的 獨立權을 抑圧民族으로부터 自由롭게 政治的으로 分離하는 權利를 意味하며, 모든 形態의 民族的 抑壓에 對한 鬪爭의 總括的 表現을 意味』(註 36) 하는 것으로 理解한다.

따라서 民族自決이라고 말할 때 北傀는 이것을 美國으로부터의 解放鬪爭으로 認識하며, 列強의 支援을 排除하고 韓國을 孤立시키는 鬪爭을 指向한다.

이러한 「民族自決」은 民族主義를 反美鬪爭과 韓國孤立化에 利用하는 對南政策으로 展開될 것이며, 韓國內에서는 軍事的 均衡이 없는 政治的인 或은 觀念的인 平和共存의 幻想을 造成하는 危險性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도 危險性의 根本要因은 南北間의 힘의 對比이며 金日成
死亡後 金正一의 權力世襲이 進行되는 時期에도 南北關係를 左右하
는 根本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8 . 結 論

共産圏의 權力承繼는 例外없이 政治的 冒險과 피투성이의 權力鬭爭을 同伴하였고, 革命 1代의 리더십은 後繼者에 依해서 修正되었다.

스타린의 屍體를 파내서 共同墓地로 옮기고, 헝가리 革命과 체코의 暴動을 가져온 것도 承繼危機의 所産이다.

이러한 經驗을 綜合한 金日成은, 自己의 後繼者로 아들을 選拔하였다.

共産圏의 強力한 批判과 全世界의 嘲笑를 무릅쓴 權力世襲作業은 아직 4名에 不過하고 이 作業은 金日成의 生存期間 繼續될 것이다.

北傀는 權力世襲을 合理化하고 金日成死亡後, 金正一에 對한 挑戰을 予防하기 爲하여 世代交替라는 極難한 課題를 提示하였다.

이 方針에 따라 우선, 三大革命小組를 앞세워 中下層 幹部를 去勢하였고, 党内에서는 老幹部까지 行政部署로 轉出시켜 党에 對한 金正一의 唯一指導體制를 樹立하고 있다.

世代交替를 前提로 하는 것은 北傀의 權力承繼作業을 다른 共産國家와 比較해서 가장 큰 特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金正一의 周圍에는 젊은 30 代の 새로운 參謀들이 拔擢되고, 심지어 軍隊에서도 聯隊長을 35 歲未滿으로 交替하였다.

地方党的 中間幹部는 40 歲未滿으로 交替하였고, 幹部養成機關의 要員은 20 ~ 30 歲 内外로 年수를 크게 引下調整하였다.

既成世代 全体를 모든 分野에서 淘汰하는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金日成의 命令에 따라 強行되고, 지금은 뚜렷한 反抗이 表面化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死亡後의 事態發展이 金日成의 生前뜻대로 進行되지 않는 것이다.

最上層 老幹部들이 金日成生存期間에는 敢히 独裁者の 자리를 엿 보지 못하고 權力世襲에 協力하고 있으나 金日成死亡後에 그들이 金正一을 首領으로 받들 것인지 아무도 保證하지 못한다.

새로 자라난 젊은 幹部들을 흔히 極烈分子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特性은 合理主義的 一面을 強하게 나타낸다는 것이다.

金日成死亡後 金正一의 權力承繼가 一旦 成功한다 하더라도 新世代 幹部들이 非合理的인 繼續革命原則을 無條件 따를 것인가, 하는 것도 斷言하지 못한다.

가장 決定的인 危機는 外部의 壓力으로 造成될 것이다.

여기에는 中·蘇의 壓力을 첫번째로 考慮할 수 있으나 더욱 決定的인 것은 韓國의 存在라고 해야 할 것이다.

北韓과는 전혀 다른 政治原理下에서 움직이고, 經濟發展과 生活水準에서 이미 앞서 있으며 80年代에는 더욱 더 멀리 앞서 갈 韓國의 存在는, 金日成主義體制 外的 다른 體制를 追求하도록 刺戟하여 北傀의 存立을 威脅할 수 있다.

韓國의 힘이 不可抗力의 重量으로 北傀를 壓倒할 때 北傀는 金日成式 強硬政策을 修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韓國의 国力伸張은 北傀의 承繼危機를 加速시키고, 金日成死亡後의 이데올로기 및 政策論争과 새時代의 合理主義 要求를 刺戟하는 決定的인 作用을 할 것이다.

韓國의 힘이 北傀를 壓倒하는 範圍를 뛰어 넘어 中共이나 蘇聯等 北方 共產勢力에게도 만만치 않은 現實的 存在로 浮刻된다면, 이러한 時期의 韓國은 自由陣營 強大國에게 있어서 中·蘇에 對抗하는 同盟政策의 重要對象으로 變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韓半島周邊 列強들의 勢力均衡政策에서 韓國은 強力한 發言權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韓國과 自由陣營 強大國間의 關係에서 弱小國과 強大國間의 同盟이라는 從前의 性格을

本質적으로 變化시킬 것이다.

韓國의 힘이 여기까지 이르면 金日成體制, 따라서 金正一後繼體制
存立의 名分인 對南革命目標의 變更을 強要하게 되며, 80年代로
予想되는 作用을 하게 된다.

韓國의 国力伸張은 北傀에 對한 唯一한 說得力이며, 國土의 平和
統一을 達成하는 唯一한 길이다.

註 記

- 1) 「幽靈에의 挑戰者 후루시초프」, 新英社, 61.12.10 版.
- 2) 共產主義理論과 現實批判, 4卷, 内外文化社, 64年5月30日版.
- 3) 「辯証法的 및 歷史的 唯物論」, 下卷, 勞動新聞出版社, 62年5月10日版.
- 4) 上掲書.
- 5) 統一日報, 76年11月25日.
- 6) 上掲新聞.
- 7) 朝總聯 幹部學習提綱, 「尊敬하는 指導者 金正一同志의 唯一的 指導體制를 세워 主體偉業을 代를 이어 빛나게 遂行해 나가자」, 76年10月.
- 8) 上掲書.
- 9) 上掲書.
- 10) 「蘇聯共產黨 第21回大會」 第1分冊, 日本共產黨 宣傳教育部編, 1957年.
- 11) 스탈린全集, 13卷, 「콜호즈突擊隊員 第1回 全國大會 演說」, 1933年2月.

- 12) 日本 毎日新聞, 77年2月25日.
- 13) 朝鮮中央通信, 73年10月13日.
- 14) 75年1月15日 農業大会 金日成演說.
75年1月8日 北傀朝鮮中央放送.
- 15) 北傀党 5期10次全員會議에 관한 報道, 75年2月18日 北傀朝鮮中央放送.
- 16) 上掲放送.
- 17) 工業部門 熱誠者會議 金日成演說, 北傀 朝鮮中央放送, 75年3月5日.
- 18) 北傀 朝鮮中央放送, 75年3月5日.
- 19) 北京放送, 77年10月17日.
- 20) 「帝國主義 思想文化 浸透를 防止하자」, 北傀 朝鮮中央放送, 76年12月3日.
- 21) 76年11月, 金日成—小田実 會見, 日本 毎日新聞, 11月27日.
- 22) 「北傀党 第2次 代表者會議 金日成演說」, 金日成著作選集, 4卷 労働党出版社, 68年9月5日版.
- 23) 労働新聞, 66年8月12日.
- 24) 「党創建30週年 金日成報告에 對한 幹部學習提綱, 75年3月.

- 25) 모스크바放送, 77年10月26日.
- 26) 註 24 와 同一文件.
- 27) 「北傀党 5次大会 金日成報告」, 金日成著作選集 5卷, 勞動党出版社, 72年2月20日.
- 28) 맑스, 엥겔스選集, 補卷 2, 「諸版序文 및 附錄」, 엥겔스, 1887年.
- 29) 勞動新聞, 77年10月10日社說.
- 30) - " - 56年12月14日.
- 31) 레닌全集, 29卷, 「国家와 革命」, 59年版.
- 32) 스탈린全集 7卷, 「蘇聯共產党 14次大会」, 1925年12月.
- 33) 金日成著作選集, 5卷,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創建 20週年 慶祝大会」, 勞動党出版社, 72年2月20日.
- 34) 北傀 平壤放送, 72年7月3日.
- 35) 每日新聞, 8月22日, 「金日成一宇都宮 會談」.
- 36) 레닌全集 22卷, 「社会主義와 民族自決權」, 1916年1月.

THE UNIVERSITY OF CHICAGO

PHYSICS DEPARTMENT

PHYSICS 435

PROBLEM SET 1

要 約 文

1. 共産圏 權力承繼의 特徵

共産圏의 權力承繼는 先行者의 리더십의 承繼를 指向하나 後繼者는 例外없이 先行者의 리더십을 拒否하고 修正하였다.

또한 權力承繼는 항상 危機를 同伴한다. 指名된 後繼者와 首領의 關係, 後繼者와 其他 幹部間의 關係가 惡化된다.

이데올로기와 政策論争의 形態로 強行되는 權力鬭争이 危機를 深化시킨다.

先行者가 死亡한後, 外部干涉과 内部鬭争에서의 勝者가 後繼者의 자리를 굳히는 것이다.

그리고 体制全般에 深刻한 變化를 일으키는 것은 避할 수 없는 흐름이다.

2. 金正一 權力承繼의 理論

共産圏 承繼經驗을 北傀나름대로 決算하고 危險要素를 豫防하려는 것이다.

우선 世代交替를 主張한다. 이것은 金日成死亡後 金正一에 對한 挑戰可能性을 미리 뿌리 뽑자는 것이다.

두번째로 金日成의 리더십을 變化시키는데 死活的인 利害關係를 가진者를 選擇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金日成의 身辺에서, 金日成의 리더십을 배우며 長期間 準備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金正一의 權力世襲을 合理化하기 위한 詭弁이다.

3. 世襲準備의 背景과 準備過程

金正一의 權力承繼問題가 提起된 決定的인 動機는 金日成의 健康惡化이다. 金日成은 73年 2月 三大革命小組 責任者로 金正一을 拔擢하였고, 73年 9月 党 5期 7次全員會議에서는 党的 公式機構에서 正式으로 後繼者 指名에 成功하였다.

後繼問題의 成敗가 달린 軍部の 支持를 얻기 위하여 73年 10月에는 超大規模의 北傀軍 熱誠者大會를 開催하였고, 74年 2月 金英柱를 行政府로 轉出시키므로써 党에 對한 金正一 唯一指導體制 確立을 試圖하였다.

75年 1月の 農業大會, 75年 2月の 5期 10次全員會議, 3月の 工業大會에서는 党秘書局, 組織部, 宣傳部等, 特定된 部署를 讚揚하므로써 金正一의 功을 浮刻시키려는 企圖를 露骨化시켰다.

75年 12月 25日 부터 76年 3月 4日까지 金日成의 行跡이 나타